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n.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체육대회 앞두고 한인들 열기 후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보스톤의 연례 광복절 행사인 한인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참가자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매년 가장 큰 참여율을 보이는 종교 단체에서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북부보스톤교회, 비전교회 등 다수의 교회가 이미 참가신청을 했고, 개인과 단체가 서로 팀을 엮어 체육대회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보스톤 체육회 소속으로 체육대회에 출전한다는 올스톤 슬래머스 야구팀의 이학재 단장은 “소프트볼과 계주 연습을 틈틈히 하고 있다. 앞으로 한두번 더 맞춰보려고 한다” 고 말했다. 보스톤야구회는 “야구회 리그 차원은 아니지만 개인이나 소속 단체별로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리그 스케줄을 모두 비워놨다” 고 전했다.

뉴햄프셔에서 기안(Kian) 태권도를 운영하는 서원일 사범은 토요일 훈련 스케줄을 조정해 소프트볼 개인 참가를 고려 중이다. 서사범은 “뉴잉글랜드 교포사회가 크지도 않은데 모르고



2011년 한인체육대회에서 북부보스톤김리교회와 보스톤장로교회가 배구 경기를 하는 모습

지내는 분들이 많다” 며 “체육대회를 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 고 전했다. >>8면으로 계속

한인 유학생 꾸준히 감소, 왜?

유학생수 2012년 10만에서 8만4천으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수년간 10만명 선을 유지했던 대학 및 대학원 한인 유학생들의 수가 최근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미 이민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지난 5일 발표한 SEVIS 등록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오랫동안 10만명을 웃돌던 한인 유학생 수는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9만1693명, 7월에는 8만 4천 여명까지 떨어졌다.

이민국은 미국내 국제학생 수가 가장 많은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여전히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 중 한국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뉴욕 타임즈에서는 미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들이 급격히 줄었고 그 빈자리를 중국 학생들이 채우고 있다며 원인과 실태를 집중 취재해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는 한국내 교육 및 취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학 열풍이 꺾였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영어교육 강화와 발전으로 인해 굳이 유학하지 않아도 충분한 영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고, 국내 인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유학생들이 취업난을 겪는 것이 주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1990년대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유학 돌풍은 유창한 영어구사와 외국대학 졸업장이 취업시장에서 크게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영어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65.47~

9월 비수기 보스톤출발 왕복 항공권

8월 1일부터! IACE가 보스톤 손님들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합니다!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Rental Listings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0 Weymouth, 2 beds, 1 bath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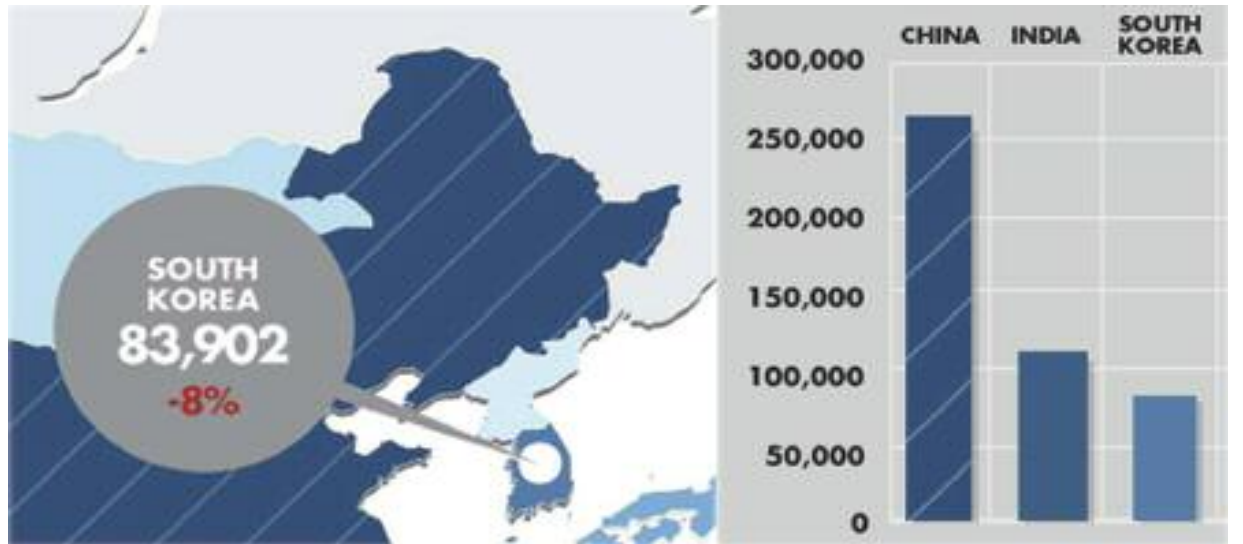
한국내 영어교육 강화 및 유학생 취업난 원인인 듯

▶▶1면에 이어서

학원과 영어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영어수업을 제공한다. 높은 토익 점수는 기본이 됐고, 오히려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방학 때 한국에서 토플이나 GRE, SAT 수업을 집중 수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 대학에서 비즈니스 학위를 따고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케빈 김 씨는 “가장 큰 고민인 영어를 한국에서 더 잘 가르친다. 영어 학원마다 미어터지고, 유학생보다 공익영어시험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도 수두룩하다” 고 실태를 전했다.

미국에서 중, 고, 대학 시절을 보낸 유아랑(가명) 씨는 “한국 영어 교육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 방학동안 SAT랑 토플 수업을 한국에서 수강했었다” 며 “외국에 한번도 안 나간 아이들, 청년들, 전부 실력이 출중했다” 고 말했다.



지난 5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외국 유학생 통계자료

“가장 큰 고민인 영어를 한국에서 더 잘 가르친다. 영어 학원마다 미어터지고, 유학생보다 공익영어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수두룩하다”

단순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유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다. 한국 사회와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이 아니고서야 ‘유학생’ 을 경쟁력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실업률이 60%까지 육박

한 한국 취업시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오히려 유학생을 제치고 채용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을 정도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채용박람회 참가한 박 씨는 “언론, 홍보, 잡지 계열 부스를 돌아다녔는데 유학생이라고 하니 꺼리는 기업도 꽤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지원자들에 비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어 어휘력이나 작문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더라” 고 전했다. 덧붙여 “유학율이 높아지다 보니, 아이비리그 정도 아니면 한국 유명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 외국에 나갔다고 판단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고 전했다.

그러나 유학을 ‘남용’ 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와 자세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1년간 보스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한국에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 중인 김예은 학생은 ‘스펙’ 보다는 “우물 밖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호기심과 도전의식” 을 가지고 미국에 갔다. 그녀는 “모두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치관과 세계관이 크게 달라졌고 여러 상황과 환경에 대해 때때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중요한 인생 자산이다” 라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실력있는 유학생, 해외인재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그들을 타겟으로 한 채용박람회나 각종 행사들이 여름 방학 기간 중 진행되고 있다.

epark@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일승천기 단 유니클로 보스톤 입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극우적인 색채로 많은 한인들에게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인기있는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가 매사추세츠 6개 지역에서 오픈한다.

8월 29일을 시작으로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보스톤 다운타운, 뉴튼, 피바디, 데드햄 등에서 6개의 매장을 선보인다.

질 좋은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유니클로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세계로 뻗어나가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패션 중심지인 홍콩과 뉴욕도 사로잡았다.

유니클로의 인기와 비례해 유니클로의 극우활동도 한국과 한인동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구실 아래 육일승천기가 크게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하고, 뉴욕현대미술관의 육일기를 형상화한 작품전시회를 후원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일본평이라 주장하는 우익 교과서를 후원하는 명단에도 기업명을 올려 한국에서는 격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었다.

특히 지난해 2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Tokyo 1955-1970'이라는 주제 아래 전시된 일본 작가들의 작품과 배포된 홍보물이 대부분 육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져 뉴욕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서까지 반발이 거셌

다.

약 세달간 전시회가 이어졌고, 뉴욕 거리 홍보 포스터와 다수의 뉴욕 공연 정보 웹사이트에 도배된 홍보 배너에도 육일승천기 이미지가 사용됐다. 이 전시회를 후원한 기업이 재팬 파운데이션, 일본항공, 그리고 유니클로였다.

MoMA의 글렌 로우리 관장에 서한을 보내 홍보 포스터 폐기를 강하게 촉구한 뉴욕학부모협회 최윤희 고문은 "젊은 세대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전시회를 유니클로같은 젊은 층이 많이 애용하는 의류브랜드가 후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다.

미술관 측은 전쟁 후 미국의 점령 아래 뒤바뀐 이데올로기, 고난, 나라의 발전상 등을 표현하기 위해 육일기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MoMA처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술관이 예술을 빙자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그릇된 역사관을 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나치 상징이었다면 그 작품과 홍보물로 뉴욕 한복판 거리를 장식할 수 있겠나"라고 항의했다.

유니클로의 야나기 다다시 회장은 4년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뉴욕 5번가에 위치한 유니클로

이즈미 수상이 왜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건지 모르겠다. 개인 취미를 외교에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우익 정치인들의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로, 단순히 두터운 한국 마니아 층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발언 이후에도 유니클로는 극우 색채를 띄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

따뜻하고 가벼운 유니클로의 겨울

의류를 좋아한다는 대학생 이수미씨는 "유니클로가 자신들은 아니지만 육일기 티셔츠를 팔고, '다케시마'를 지원한다 하니 구입하면서도 찝찝하다. 보스톤 입점이 반갑기도 하지만 쇼핑이 망설여진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유니클로는 현재 미국 내에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보스톤, 필라델피아, L.A 지역 매장을 다수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park@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박에바다 Ephatha Par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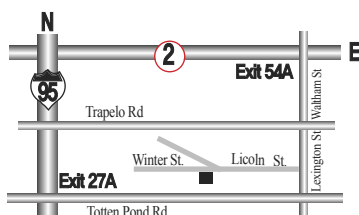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과기협 뉴잉글랜드, 연례 골프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조진행)는 9월 6일 토요일 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가을 정기 골프대회를 연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연례 골프대회에 대해 조진행 지부장은 “In-and-Out 스윙을 강조하듯이 indoor 네트워킹을 벗어난 outdoor 골프대회 행사가 과학 기술자들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길 되기를 바란다” 며 “뉴잉글랜드 지역의 과학 기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고 전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2014-2015 과기협 회원으로 등록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미 과학 기술자 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사이트

(www.kseane.org)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contact@kseane.org로 연락하면 된다.

- 일시: 2014년 9월 6일 (토) 1시 Shotgun (12시부터 체크인 및 규정 설명, 사진 촬영)

- 장소: Stow Acres CC, North Course, 58 Randall Road Stow, MA 01775

- 참가비: 개인 \$100, 부부동반 \$180 (카트, 점심, 저녁, 그리고 과기협 멤버십 35불 포함)

- 홀 스폰서: 1구좌 100불. 각 홀에 스폰서 소속과 성함을 게시함.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고: 마운틴 가필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오는 16일 마운틴 가필드(Mt. Garfield)에서 정기산행을 한다. 이번 산행은 A,B,C가 한 조로 움직이고 S조가 따로 움직인다. 신청시 원하는 조와 집결지(Allston 혹은 Exit 2)를 선택해야 하고, 집결지까지 운전 여부를 알려야 한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중식 등이다. 산행 신

청은 14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하며 회비는 20불이다. 문의 및 산행 신청은 617-869-5157 로 하면 된다.

산행일: 2014년 8월 16일 토요일
집결지: Allston 공영주차장 오전 6시

Park & Ride Exit 2 of RT 93 오전 6시 45분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체육회, 한국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모집

(보스톤 = 보스톤체육회) 박에바다 기자 = 제주도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선수들을 보스톤체육회에서 모집하고 있다.

한국의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이뤄지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보스톤 체육회가 해외동포 선수단 중 미국팀으로 참가한다.

보스톤 체육회 조형구 회장은 종목별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며 “관심있고 재능있는 동포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보스톤 곳곳에 다 숨어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했다.

해외동포 선수단은 18세 이상의 대학생 및 성인 중심인 ‘일반부’로 꾸려진다. 항공료만 본인 부담이며, 그의 교통, 식비, 숙박 등이 모두 지원된다. 국내선수단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자세한 안내와 지원을 받게 된다.

정식 경기 종목 44개 중 해외동포팀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은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근대5종, 골프, 보디빌딩, 핀수영, 스쿼시 등 26개다
미주대한체육회 산하 협회들 중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협회 중

심으로 종목이 선정된 것이다. 참가문의를 조형구 보스톤 체육회장 (781-326-9009)에게 하면 된다

epark@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참외, 복숭아, 블루베리 'Picking' 시즌이 돌아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복숭아와 블루베리는 이미 가득 단물을 품었고, 사과도 꿀처럼 익어가기 시작했다. 이맘때쯤 놓쳐서는 안 될 재미가 바로 '피킹'이다. 가족, 친구와 함께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 농장에서 보내는 하루. 피킹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맘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상쾌히 재충전해보자.

* 금싸라기농장

금싸라기 참외, 한국 오이, 한국 애호박 등이 잔뜩 열려있는 정성렬 사장의 농장은 지난해 처음 오픈했다. 작년에 예상 밖의 많은 피킹 손님들로 인해 올해 재배면적을 좀더 넓혔다. 정 사장은 시골 밭두렁 느낌을 살려 시골의 집 같은 농장을 가꾸고 있다며 유기농, 자연재배농법을 고집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해마다 재배면적과 품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밝혔고 "한인사회에 싱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파운드당 가격은 농장 오픈 전

품질을 자세히 확인한 후 책정한다. 8월 9일에 시작해 8월 말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농장을 오픈한다.

장소: 61 Maple ave, Grafton MA
문의: 정성렬 646 670 1810

*Tougas Family Farm

보스톤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넓게 자리잡은 토거스 농장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지금 한창 블루베리와 복숭아 시즌을 맞이해 블루베리는 8월 말, 복숭아는 9월 초까지 피킹할 수 있다. 특히 복숭아 나무가 낮아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위험이 없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다.

블루베리는 10 파운드 이하의 파운드당 \$3.99, 10파운드 이상은 파운드당 \$3.49다. 2세 이상은 개인당 \$5의 입장료가 적용된다.

복숭아는 'Peck' 으로 했을 때 10 파운드에 \$22 이고 4명까지 허용된다. '1/2 Bushel' 로 했을 때는 20파운드까지 \$33이며 6명까지 입장을 허용한

다. 곧 사과와 블랙베리 피킹도 시작된다.

피킹 후 과일이 익는 시간을 고려해 며칠씩 텀을 두고 오픈과 휴업을 반복하기에 피킹 일자와 시간은 미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장소: 234 Ball st. Northboro, MA
문의: 508-393-6406,
www.tougasfarm.com/

*Red Apple Farm

레드 애플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4 세대에 걸쳐 이어져오는 가족 농장이다. 현재 블루베리, 라즈베리, 그리고 이른 시기지만 사과 피킹도 가능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토끼, 양, 염소, 돼지, 당나귀, 닭, 등 동물 농장도 함께 있다. 동물을 구경하고 직접 먹이도 주고 만져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주소: 455 Highland Ave., Phillipston MA,

문의: 800-628-4851,
redapplefarm.com

*Parlee Farms

93 에이커 크기의 이 가족 농장은 과일, 채소, 꽃을 재배한다. 매사추세츠 주의에 이 농장의 70% 이상의 피킹 농지가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꾸준히 농작물을 재배하고 피킹을 할 수 있게 됐다.

블루베리 피킹은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오후 2:30분이 마지막 입장이다. 블루베리 5파운드 이하는 파운드당 \$3.99이고, 5파운드 이상은 파운드당 \$2.99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꽃을 꺾을 수 있으며 백일초와 글라디올러스 꽃은 파운드당 \$8.99, 해바라기는 한 송이당 \$1.50이다.

복숭아는 기후 악화로 충분한 재배를 하지 못해 이번 시즌은 피킹이 없다. 과수원 입장과 피킹 바구니는 무료다.

팔리 농장은 거의 매일 새로운 뉴스

와 변경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므로 사전에 웹사이트 확인이 필수다.

주소: 95 Farwell Road Tyngsboro MA, 01879
문의: 978-649-3854,
parleefarms.com

매사추세츠 주 웹사이트 'Pick-Your-Own-Farms' 페이지

(<http://www.mass.gov/agr/mass-grown/pyo.htm>)를 방문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농장들을 만나볼 수 있다.

피킹 품목과 지역, 특정 거리 등을 검색해 자신이 원하는 피킹 농장을 찾을 수 있다. 농장에서의 숙식여부, 유기농장, 파머스 마켓, 와인 농장, 낙농장 (목장에서 젖소를 키워 우유와 치즈를 생산해내는 농장) 등이 세밀하게 아이콘으로 표시되어있다.

검색결과 지도에 표시되는 각 농장마다 간략한 소개, 특징, 연락처, 주소 등을 안내해 편리한 농장 리서치가 가능하다.

epark@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한국바로알리기 동영상·에세이 공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김현)에서는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에세이와 창작 콘텐츠(UCC)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달간 개최한다. '내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의 이 공모전은 외국 교과서에 표기된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올바른 내용을 늘려나가기 위한 '한국 알리기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문화교류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의도를 밝혔다.

에세이 부문 공모주제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이미지'와 '한국 이해자료활용'이다. 전자에서는 외국교과서를 포함한 외국 자료에 나타난 한국이미지나 외국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 방안을 글로 풀어내면 된다. 후자에서는 한국 이해자료의 활용후기 혹은 한국 이해 자료 개발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작성하면 된다.

UCC 부문은 '한국 바로 알리기'이며 해외에 한국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한국의 역사 및 문화 관련 창작 동영상을 손수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한국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국내외 거주 개인 및 단체,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품을 제출

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실시된 이 공모전에는 한국 학생, 해외 한국학 연구자, 한국어 전공 외국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400여편의 응모작이 접수되고 있다.

수상 결과는 11월 1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로 통지된다.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들은 외교부·교육부 장관상과 90만원 상당의 경품이 수여되고 그외에도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해 상장과 경품을 전달한다. 입상작은 온라인 홍보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응모 희망자는 <http://www.ikorea.ac.kr/korean/>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highspirit@aks.ac.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실
○ 홈페이지: www.ikorea.ac.kr
○ 이메일: highspirit@aks.ac.kr
○ Tel: (+82)-31-709-6571, 031-709-6596
epark@bostonkorea.com



내 부인 (X) -> 제 아내 (O)

'부인(夫人)'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3인칭]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보기: "방금 그분이 김선생님의 부인이신가요?")

[2인칭]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존중해 주는 의미의 호칭 (보기: "부인, 이리 와 보시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부인~" 하고 부르는 경우(2인칭)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부인"이라는 말을 쓰면 남에게 자신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말 뜻을 잘못 알고 남에게 스스로와 자신의 아내까지 높이려고 애쓰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엔 "제 아내"(상대방에게 존댓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경우엔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부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웃긴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가리켜 "부인"이라고 지칭하면 유머가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몇 번 나온 공통된 주제들 중 한 가지가 "뜻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존칭을 쓰면 오히려 결례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저희" 같은 말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위안부기림비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4일 제막식을 가진 뉴저지 유니온시티 리버티 플라자의 위안부 기림비에 한명숙 전 총리가 5일 방문해 참배했다.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진 한명숙 전 총리는 "위안부는 다신 되풀이되선 안 될 참혹한 역사의 산물이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어느 나라 역사 속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스톤에서는 보스톤민주연합 조은구, 황동재 본부장이 참석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재외동포처 신설을 위한 미주 각지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5일부터 13일까지, 뉴욕,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5일 뉴저지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에 참배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와 방문단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림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YES CLASS 보스톤 지역 교육 사업 설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YES CLASS가 보스톤에서 교육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YES CLASS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 러닝 방식의 학습 시스템으로 현재 미국내 16개의 러닝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학습에 온라인 웹북을 가미해 공부에 재미를 더한 YES CLASS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공부에 즐거움을 느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한다.

YES CLASS의 대표 프로그램인 K-8학년 과정은 홈워크 위주의 구몬 러닝센터와 유사하지만 온라인 학습을 더해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게 하고, 9학년-12학년 과정은 SAT, ACT 튜터링 위주로 진행되는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이다.

가맹점은 저학년 중심의 학습지 러닝센터와 고학년 중심의 SAT 학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본사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미전역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시장에서 학습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명회 대상은 구몬 러닝센터와 같은 모델의 교육 사업에 관심 갖고 있거나 E2비자의 교육 사업체를 찾고 있는 자이며, 기존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최 측은 참석을 환영했다.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교육 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공된다.

사업설명회 일시: 8월 9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 웨라튼 호텔, 1659 Worcester Rd, Framingham, MA 01701
참석 문의: 201-410-8797, info@yesclass.com
공식 웹사이트: www.YesClass.com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명량' 무료 티켓 증정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코리아를 애독하는 독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깜짝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창 인기몰이 중인 '명량'의 무료 관람권을 증정하기 위한 이벤트다.

보스톤 코리아 웹사이트 (bostonkorea.com)에 게재된 기사에 "내가 명량을 봐야하는 이유"를 8월 12일까지 댓글로 달면 된다.

진지하거나 재치있거나 각자의 진심과 개성을 담아 댓글을 달면 7명을 추첨해 각 두장씩, 총 14장의 평일관람 무료 티켓을 증정한다.

'명량'은 현재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68만), 역대 최고의 평

일 스코어(86만), 역대 최고의 일일 스코어(125만), 최단 100만 돌파(2일), 최단 200만 돌파(3일), 최단 300만 돌파(4일), 최단 400만 돌파(5일) 등 신기록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10대, 20대는 물론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 전 연령대를 극장으로 불러들이며 입소문 열풍이 시들지 않고 있어 개봉 8일만에 700만을 돌파했다.

'명량'은 천만 관객을 동원한 '변호인', '아바타', '7번방의 선물' 등보다 두 배 이상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며 향후 새로운 흥행 신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park@bostonkorea.com

한인리더들, 한국인 전문직 비자 청원 로비활동 총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전역의 주요 한인 리더들은 7월29일부터 31일까지 1만 5천개의 한인 전문직 비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청원 로비 활동을 펼쳤다. 워싱턴 DC에서 의회의 휴회와 의원들의 의정회기말 기간이 다가오면서 뜻이 맞는 한인 리더들이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보스톤에서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김성혁 보스톤 회장이 참여했다.

이번 공식 방문단으로 참여한 미주 한인총연합회 이정순 회장단과 학생 대표들은 지금까지 99명의 의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현장 로비를 통한 2명을 더 추가시켜 총 101명 연방하원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서 조지 아이잭슨(조지아, 공화) 상원의원, 마크 베가치(알래스카, 민주당) 상원의원, 로이 블러트(미주리, 공화) 상원의원은 미 국무부와 협의해 한인 전문직 취업비자 'E-4'를 연방상원에 상정했다.

한인들의 위 같은 노력은 이 전문직 비자를 매년 1만 5천개씩 발급하도록 하는 'Partner with Korea Act'를 한국과 FTA로 연계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체계적인 청원이다.

민주평통 김성혁 회장은 로비 활동 후 "한미시민협회 출신 로비스트들

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말하며 "차세대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커뮤니티와 차세대들이 함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일하는 장을 더욱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시민참여연대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번 성과에 대해 "이번 활동을 통해 보여준 한인 리더쉽과 실질적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HR-1812) 통과를 위한 로비 노력은 차세대 풀뿌리 정치력 신장의 원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단체별 연습 돌입, 개인 참가도 잇따라

▶▶1면에 이어서

한인 체육행사를 위해 한인회와 협력한 보스톤 체육회는 4 종목 중 배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맡아 진행하게 됐다. 보스톤 체육회 산하 골프, 탁구, 야구, 태권도협회 등은 협회별로 선수를 추려 보스톤 체육회 소속으로 출전한다.

조형구 보스톤체육회장은 “다들 체육인이라 체력은 문제없으나 손발을 맞추기 위해 이번 주말에 모여 연습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표했다.

작년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 우승을 내주고 2등을 차지했던 북부보스톤교회는 승패를 떠나 체육대회 참여에 의의를 두고 있다. 20년 넘게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북부보스톤교회는 체육대회를 전통으로 여기며 전 종목마다 책임자를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이후석 사회봉사부장은 “금년에는 개인과 팀별 스케줄에 차질이 있어 종목별 연습이 예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진 않다.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체육대회를 총괄하고 있는 장수인 한인부회장은 “과기협, 경기고 동창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각종 동호회들이 참여 의지는 높은데 선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팀을 만들 선수가 부족하니 개인으로도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진행상황을 전달했다. 오락을 맡아 진행할 레크리에이션 강사와 네일 아트 봉사활동을 할 청년도 섭외했다.

매년 총영사관을 통해 지급되던 정부 지원금이 올해는 지원되지 않지만 한인 사업처에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장수인 부회장은 “금액에 상관없

이 많은 분들이 흔쾌히 후원해 주신다. 정부 지원금 없이도 체육대회 진행이 가능할만큼 후원금이 모아졌으니 이런 의미에선 이번 해 참여도가 아주 좋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작년 체육대회에서 조형구 체육회장은 탄탄한 협회가 구성된 축구, 야구, 태권도, 골프 등과 달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인기종목임에도 협회 부재로 한인사회 내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소프트볼이나 배구를 언급했었다.

조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배구 및 소프트볼 대회 참가자 모집과 협회 구성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이번 체육대회 후 소프트볼 대회를 따로 진행하고, 배구 협회 구성 및 대회를 연계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한인들이 체육을 통해 더욱더 화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조회장은 덧붙였다.

보스톤 체육회는 전라북도 초청에서 전라북도 관광 홍보를 위해 보내오는 태극선 부채를 모든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뉴잉글랜드 한인체육대회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아스널 공원 (485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에서 개최되며, 소프트볼, 농구, 배구, 족구 등 4종목과 모든 참가자를 위한 이어달리기(계주)가 있다. 종목별로 \$100, 4종목 모두 참가시 \$350의 참가비가 있고 계주는 참가비가 없다.

참가신청 및 문의: 781-933-8822, haninhoebo@gmail.com

epark@bostonkorea.com



즉석 삼계탕 축산업계 최초 미 수출, 한인 거주지 중심 판매 돌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직접 만들지 않아도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한국의 즉석진공포장 삼계탕을 내달 말부터 미국에서도 맛 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의 대표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 미 축산물 검역의 방어망을 뚫고 ‘대한민국 축산업계 최초 미국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하림 수출 관계자는 “재미등포들이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 삼계탕의 재료와 조리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한 하림 삼계탕은 상온보관이 가능한 레토르트 제품(고향

삼계탕)과 냉동보관하는 급속동결 제품(즉석 삼계탕) 두 가지 종류다.

삼계탕 1차 수출분 42.5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검사를 마친 뒤 내달 8월 내에 미서부 LA와 동부 뉴욕에 각각 도착할 예정이다. 그 후 미 식품안전검사국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해당 절차를 밟고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 삼계탕은 미 전역에서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를 통해 개당 \$8.9로 판매된다.

하림은 미국 판매 개시에 맞춰 삼계탕 글로벌 웹사이트도 오픈해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의 우수성과 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삼계탕의 유래, 제조 공정, 조리법, 관련 정보 등을 한국

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 농무부는 지난 5월 27일 미국으로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시킨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효시켰다. 한미 당국은 그 이후 수출검역위생증명서, 제품 포장지 표기사항 등 추가 절차를 진행했고 7월 24일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시작됐다.

이것은 2004년 삼계탕 수출 요청 이후 10년만에 이뤄진 것이고 그동안 많은 한국 축산 품목이 미국에서 수출허가를 거부당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park@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동물소음 못견뎌 수탉 등 독살한 소방관 체포 후 정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웃집이 내는 소음에 못잡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인가보다. 자신의 이웃이 키우던 닭 11마리를 쥐약으로 독살한 소방관이 경찰에 동물살해혐의로 체포돼 법정에서 서게 됐다. 소방관직도 정직을 당했다.

보스톤 인근 칼라일(Carlisle, MA) 타운의 소방관으로 17년간 재직했던 프랭크 사전트는 최초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자신이 동물보호협회 회원이기에 동물을 해치지도 먹지도 않는다고 발뺌했던 그는 경찰이 제시한 자신의 사진을 본 후 결국 급격하게 손을 떨 수밖에 없었다.

지난 2년간 사전트는 로웰 스트리트 이웃인 브렌든 미어필드와 그의 약혼자 아만다 드프리스트와 수탉을 두고 전쟁을 벌여왔다. 그는 수탉 울음 때문에 몇번이나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또한 타운의 보건부에도 신고했다. 지역 신문인 칼라일 모스키토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는 “나는 새벽 4시 25분에 편지를 쓰고 있다. 나는 3시 5분부터 수탉울음에 깨어났다”고 쓸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단 한가지 하지 않은 것은 이웃집 문을 두드려 직접 이야기 하는 일이었다. 이웃 드프리스트씨는 “만약에 진작에 와서 이야기 했다면 무언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벽 5시에 경찰이 와서 이야기 하기 전까지 이것이 문제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드프리스트의 반응이다.



사전트는 경찰에게 “잠을 잘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순간 닭들이 나를 놀린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동물 학대 살해죄는 최장 5년이하의 징역 및 \$25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칼라일은 뒷뜰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해 전혀 제재 법령이 없다. 특히 이 타운은 집도 크고 뒷뜰도 크기 Eoas에 염소에서 말 라마까지 여러가지 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전트는 자신의 집의 뒷뜰에 토끼를 기르고 있기도 하다.

루스터를 두고 전쟁이 시작된 얼마 후 이웃들은 일부 닭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닭장에는 녹색의 조그만 알갱이 모이가 있었다. 또한 이웃의 한 개는 이유없이 구토를 했고 수의사는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4월 경찰은 닭장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카메라를 통해 사전트의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7월에는 고무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었으며 헤드램프와 스

프레이 캔을 든 사전트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소방서장 데이비드 플래너리는 사전트를 “모든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무보수 직무해임의 처벌을 내렸다.

14년간 사전트의 이웃으로 살아왔던 아만다 드프리스트는 한 번도 그와 어울렸던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약 2년 반 동안 닭을 길러왔다고 밝혔다.

한 이웃은 아침에는 닭들로 인해 많이 시끄럽지만 집안에 있는 경우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한 다른 이웃은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보다 일찍 들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드프리스트 씨는 계속 닭을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닭을 키우지 않는 것은 “결국 사전트의 승리의 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분히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명물 대구 어획자원 급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메인 만에 살고있는 대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매사추세츠 수산업계에 그늘을 던져주고 있다.

미 해양대기청이 바다밑에서 대구 수량을 측정된 결과 지난 2011년 측정된 것부터 13-18%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측정에서 새끼 대구 수가 적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충분한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뉴잉글랜드 지역의 대구자원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 결과는 뉴잉글랜드 지역 어류 포획을 관장하는 뉴잉글랜드 어류관리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대기청 관계자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을 설정해 이번 측정결과를 재평가한 후 일반에게 공표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전 전문가들은 대구자원 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뉴잉글랜드 어류관리위원회는 메

인 만에서의 연간 대구 포획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하도록 했었다. 이로 인해 연방의회는 약 3천2백80만불의 지원금을 뉴잉글랜드 수산업계에 지원했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산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0년간 대구를 잡아왔다는 한 어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라고 조사결과를 반박했다.

뉴잉글랜드 어류관리위원회측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아주 중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대구 수가 계속해서 감소했고 이에 맞춰 수확량도 감축시켜 대구 수의 반증을 꾀했다”는 어류관리위원회측은 “수산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구로 유명한 매사추세츠에서 대구를 옛날만큼 흔하게 접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유식과 회복이 있는 곳”

문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8월 16, 17일에 세일즈 택스 면제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가 올해도 8월에 찾아온다. 세일즈 택스를 오는 8월 16일과 17일에 면제해주는 법안이 지난 주에 의회에서 회기 종료 직전에 통과되었다.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주는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성장법안의 일부다. 이 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장려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성장 법안을 발의한 게일 캔다라스 상원 의원은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주는 것이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며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는) 매년 열리는 인기 있는 이벤트가 되었다.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고 말했다.

8월 16일과 17일 이들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6.25%의 세일즈 택스가 면제된다. 2,500 달러 미만의 물품에 한하며, 자동차와 배,



8월 16, 17일에는 물건을 구입해도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지 않는다. 드벌 패트릭이 이 내용이 담긴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담배 등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올해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법안을 표결하기도 전에 일부 가게에서는 기획 상품을 준비하고 광고를 시작했다. 세일즈 택스 면제 행사가 매년 있어왔기 때문이다.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을 제외하

고 올해까지 매년 같은 행사가 있었다. 2009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예산 삭감과 함께 세일즈 택스가 5%에서 6.25%로 올랐다.

미국 내 18개 주에서 1년에 한 번씩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다만 매사추세츠 주만 유일하게 주법으로 영구적인 날짜를 지정해놓지 않고 매년 필요에 따라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MBTA 주말 심야 서비스 이용자 꾸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MBTA 주말 심야 운행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주말 심야 운행 서비스를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면서 MBTA의 정규 서비스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몇 년 전부터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기업인들과 주민들로부터 주말에 대중 교통 운행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패트릭 주지사는 MBTA의 운행 시간을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밤 12:30에 종료되던 전철과 버스 운행 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 3시까지 연장되었다. 전철 모든 노선과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15개 버스 노선이 포함되었다.

주말 연장 운행 서비스가 시행된 3월에는 이용자 수가 1만 8천 명을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5일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매주 1만 5천 - 1만 7천 명의 사람들이 꾸준히 MBTA 연장 운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여름에도 이용자 수가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MBTA의 주말 심야 운행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승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비슷한 심야 운행 서비스와 비교하면 현재의 임시 프로그램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MBTA는 전철 주변을 운행하는 버스를 심야까지 연장 운행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에 하루 평균 2천명이던 이용자수는 2005년에 655명까지 줄어들었고, 결국 예산 부족으로 심야 버스 운행 서비스는 사라졌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홍삼으로 힘내세요!

**성적도 UP
면역력도 UP**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정관장 더블 UP 새학기 잔치

새학기는 자녀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시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BACK SCHOOL 학생용

아이패스



15% OFF

BACK SCHOOL 만 3~5세용

홍이장군 **양아록**



양아록 구입 시 어린이용 홍삼 포밍워시 또는 페이스크림 **무료 증정 (\$20 상당)**

BACK SCHOOL 만 5~9세용

홍이장군

만 9~13세용

홍이장군 **울트라**



홍이장군 또는 울트라 구입 시 어린이용 홍삼 포밍워시 또는 페이스크림 무료증정 **무료 증정 추가 증정 (총 \$35 상당)**

SPECIAL SALE

부모님들을 위한

홍삼추출액



홍삼추출액 1개 구입시 **5% 할인**
홍삼추출액 2개 이상 구입시 **10% 할인**

* 본 행사는 매장별 한정수량이며, 제품소진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명품홍삼 정품 정관장 제품은 미주 40개 가맹점 및 지정 판매처에서만 판매합니다.
홍삼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마켓 바스켓 직원들 최대규모 항의집회

신경영진의 복귀 명령 무시, 대규모 집회로 응답... 일부 직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 표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켓 바스켓이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8월 4일까지 최종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직원들은 이에 불응했으며 5일 최대규모의 집회를 특스베리 스타디움 플라자 쇼핑 단지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5일 11시 경찰 추산 약 1만여명의 직원들이 모인 집회에 참가했으며 참가한 사람들은 아서 S와 현재 경영진을 성토했고 아서 T의 복귀를 강력히 주장했다.

집회에는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참가했다. 이들은 마켓 바스켓 티셔츠를 입거나 아서 T의 얼굴이 담긴 피켓을 들었으며 일부는 마켓 바스켓을 상징하는 기린 인형을 들고 참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18일 이후 4번째 대규모 집회였으며 지난 6월 28일 첫 집회 이후 5번째 대규모 집회였다. 이외에도 마켓 바스켓 본사와 각 매장에서는 소규모의 집회가 매일 계속됐다.

그러나 마켓 바스켓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생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상당수는 아더 T 전 대표가 마켓 바스켓 인수에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곧 통장 잔고가 바닥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파업에 참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5일 보도했다.

지난 4일 마켓 바스켓 내부에서 승진을 원하는 직원들을 인터뷰하기 위한 잡페어에는 극 소수의 직원들만 참가했다. 잡페어가 열렸던 앤도버 소재 홀세일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잡페어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결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더 T 전 마켓 바스켓 대표는 지난 3일 이사회에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이 마켓 바스켓을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제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50.5%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마켓 바스켓을 정상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협상 중간 동안 자신이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면 빨리 마켓 바스켓이 정상화되는 것이 직원들, 고객들, 물품 공급업체,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제시에 대한 승인은 전적으로 아서 S 데모올라스측 주주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해관계보다는 감정의 골이 깊히 파인 가족분규라는 점에서 쉽게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사회는 대변인을 통해 아서 T 데모올라스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식 구매 협상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약 1만여명의 마켓 바스켓 직원들이 특스베리 스타디움 플라자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마치 정치 집회를 연상케 하는 이번 집회에서 직원들은 아서 S. 가족과 신 경영진을 비난하고 아서 T의 복귀를 촉구했다. 경찰은 약 5명만 출동해 있었으며 출입구를 봉쇄하고 편하게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였다. 인근 사업체는 주차로 몸살을 앓았다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풍경,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쉬르자르 사미네가 공부하지 말라고 보낸 편지가 스탠퍼드는 물론 워튼 스쿨에서도 생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문 MBA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편지 전통

성적 상위 11%에서 10%로 올리는 것은 어렵고 시간을 투자할만한 가치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경영대학원에서) 우등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익보다 손실이 큼니다. 여름 아르바이트 고용주나 당신의 첫 직장 고용주나 당신 성적이 어땠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GSB) 출신으로 베스트셀러 '긍정지능'(Positive Intelligence)의 저자인 쉬르자드 사미네가 1989년 GSB 1년 차인 후배들에게 보낸 충고 편지의 일부이다.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5일(현지시간) GSB 88학번인 사미네가 89학번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지금까지 매년 GSB는 물론 펜실베이니아대(UPenn) 와튼스쿨 등 명문 경영대학원 1년차들에게 전해져 이들의 생활 지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미네는 이 편지에서 후배들에게 매일 (성적을) 걱정하고 가슴 졸이며 생활하지 말고 신나게 살 것을 주문했다.

사미네는 성적 상위 11%에서 10%로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것은 시간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과제를 할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공부모임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숙제를 다 제출할 필요도 없다. 항상 쾌활하고 사교적인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GSB의 성적제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절반 정도만 알아도 합격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경영대학원에서의 고통이 클수록 이후 접하는 현실은 훨씬 '쉬워 보일 것'이라며 "평범함으로 채워진 실제 세계에서 당신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가 89학번 320명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당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지금도 주소가 '1989년 GSB'로 찍힌 채 복사본 형태로 경영대학원의 첫 시험기간에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사미네는 GSB 2년차에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토론 수업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뒤 '자기회의'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민한 뒤 이 편지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폰6 내달9일 미국서 공개 갤럭시노트4와 대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애플이 아이폰6를 다음 달 9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9월 9일 대규모 행사를 열고 아이폰6를 공개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이날 아이폰6 공개 행사가 열린다면,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아이폰6의 출시일은 그다음 주 금요일인 1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6는 아이폰으로는 처음

으로 4.7인치 화면을 장착하고 나올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5.5인치 화면의 패블릿(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합성어)도 함께 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다음 달 3일 독일에서 갤럭시 노트4 공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comma@yna.co.kr

아마존 당일 배송 지역, 미국 10개 도시로 확대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애플이 아이폰6를 다음 달 9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9월 9일 대규모 행사를 열고 아이폰6를 공개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이날 아이폰6 공개 행사가 열린다면,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아이폰6의 출시일은 그다음 주 금요일인 1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6는 아이폰으로는 처음으로 4.7인치 화면을 장착하고 나올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5.5인치 화면의 패블릿(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합성어)도 함께 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다음 달 3일 독일에서 갤럭시 노트4 공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comma@yna.co.k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산성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일벌백계 진짜 대상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란 인식 확산

야당 의원들 군오성 사퇴 후 김관진 정조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육군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이 5일 사임한 가운데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 실장이 지난 4월 사건 발생 당시 군 지휘 체계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사고 직후인 4월 8일 국방부장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비롯한 사건의 상당한 전모를 보고받고 이를 은폐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 윤희덕 의원이 입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1차적으로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 실장에게 서면으로 '중요사건보고'를 했고, 곧이어 백낙중 조사본부장 등의 대면보고도 이뤄졌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라면서 "(김관진 전) 장관 계산 자료를 보니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더라. 처음에 국민들에게 '회식 중에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최초 보고 후) 12시간 후에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는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됐더라

"며 "그렇다면 김 전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고밖에 지적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해선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말하자 버티던 권 참모총장이 사퇴했다"면서 "일벌백계는 한 사람을 벌해서 백명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벌백계의 진짜 대상은 김 실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국방장관이었던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고, 2012년 북한군 노크귀순, 그리고 북한 무인기 축소·은폐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며 "김 실장이 진정 군인이란 비겁하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김 실장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일각에서도 김관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김 실장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부대 내 사고가 생겼을 때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니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군내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 실장이 왜 부대 내 사고가 나도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했는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의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현장인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생활관을 방문해 부대 간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김 실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 김 실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 책임자들과)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한 재선 의원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황을 보면 김 실장이 이번 사건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알고도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은 채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사건 처리에 있어서 김 실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김 실장 등을 겨냥한 책임론을 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건 당시 (김 실장은)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받았고, 최근 보도된 엽기적 내용은 보고에 없었다. 구타와 기도 폐쇄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

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에 안 가봐서 그렇지만 책임은 참모총장이 졌으면 다 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실장 등을 향한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대표는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이 원인이 어딴지나. 교육이다"라며 교육 당국자들에게 "잘못된 교육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hsb@bostonkorea.com

군 "윤일병사건 살인죄 적용여부 금주중 의견 제시"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현재 수사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법무과장인 홍창식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일단 여기(살인죄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까지 의견이 종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지는 3군사령부 검찰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육군과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수사기

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대령은 "국민적 의혹이 있어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나와있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새로운 해석을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에 보고된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김 실장은 윤일병 사망 다음날 서면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정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가래침을 핏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누락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핏하게 하고, 수액을 맞춰서 때리는 엽기적인 행위는 4월15일 28사단 헌병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며 "이러한 내용은 장관에게 이후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aebae@news1.co.kr

승승장구하던 김관진 안보실장 윤일병 사건으로 고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되며 승승장구하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둘러싼 논란으로 좌초의 위기에 봉착했다.

김 실장은 육군사관학교 28기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육사 1년 후배다. 현역 시절 35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4월 국방장관으로 발탁됐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장관에 취임한 그는 '전투형 부대', '정신교육 강화', '관료적 풍토 쇄신'을 화두로 던지며 군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정부가 교체된 뒤에도 계속 국방장관에 유임된 첫 사례이기도 하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다. 당초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김 실장이 계속 장관으로 유임됐다.

특히 국방장관에 재임했던 3년 6개월 동안 '도발 원점 타격', '지휘세력까지 타격' 등 북한에 대

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국방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3 – 8/1

가을학기 시작 9/9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새정치, 사무총장 조정식 전략홍보본부장 김현미

우윤근 정책위의장 유임...국민공감혁신위 대변인에는 박수현 내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국민공감혁신위원회) 체제를 꾸린 가운데 당의 살림을 꾸려나갈 사무총장으로 3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직전 정책위의장인 3선의 우윤근 의원이 다시 임명됐고,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재선의 김현미 의원이 임명됐다.

당초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이 3선인 것을 감안해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김현미, 이춘석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조 의원으로 낙점했다.

당내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조 신임 사무총장은 온화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에는 당내 혁신모임에 참여, 소신 있는 목소리도 내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사무총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안정감 있게 공천작업을 수행했다"며 "성품도 대내외적으로 좋은 분으로 평가돼 있다"고 설명



새정치연합의 신임 사무총장 조정식(왼쪽), 신임 전략홍보본부장 김현미(오른쪽)

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임 지도부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우윤근 의원은 사실상 유임됐다.

우 정책위의장이 현재 당 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끌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현미 의원은 향후 당 재건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홍보본부장직을 맡게 됐다.

당직자 출신의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당을 세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박영선 위원장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을 혁신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으며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부분도 평가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현재 원내정책수석을 맡고 있는 만큼 향후 당직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공감혁신위 대변인으로는 초선의 박수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내 인사와 외부 인사를 5대 5로 구성할 예정인 비대위원과 관련해 한 때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영입이 거론됐으나 실제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anghwi@news1.kr

박영선 "계파 초월 비대위 구성할 것"

"지역위원장 선출에도 오픈 프라이머리 필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인 국민공감혁신위 구성에 대해 "계파를 초월해서 구성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참패 뒤 지도부 공백 사퇴를 맞아 박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전날부터 국민공감혁신위 구성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잇달아 출연, "계파별 안배를 하는 비대위가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계파를) 초월하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계파 간 이해가 상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인물이 지역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선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해 어제(5일)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예를 들어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강특위가 선정한 지역 조직책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

들은 내년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는 지역 대의원 인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계파 수장들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박 위원장은 "지역위원장 선거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개인적 생각"이라며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과의 합당 등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정착된다면 그 제도 속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gayunlove@news1.kr

군 인권법 제정, 수년째 표류 왜?

박근혜 대통령 일벌백계 주문...군 인권 관련법 통과 주목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군대 내 구타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군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운 국방부의 반대로 매번 좌절됐다.

하지만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요구한 만큼 군 인권 문제 개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국방부가 아니라 국회 내 군사음부즈만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때에 발의됐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결국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18대에 이어 19대 국회 때도 발의했지만 지난해 6월 말 한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장기간표류 중이다.

당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이

와 유사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 산하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안 의원 등이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가장 반대하는 조항은 군사음부즈만 제도 도입이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조직의 폐쇄성이 지적돼 온 만큼 국방부 산하가 아니라 국회에 음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군사음부즈만은 권리를 침해당한 군인이 직접 진정을 넣거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정보접근권 등도 가진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군조직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국방부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군사음부즈만 제도는 2005년 논산 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천 28사단 김일병 사건 당시 이미 논의가 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군사음부즈만을 두는 독일식 군사음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처음 취지보다 한참 후퇴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권 없이 군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해병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망한 28사단 윤일병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한민구 국방장관(왼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대 총기난사 사고 등을 계기로 2012년과 2013년 국방부 내부 훈령이 아니라 법률인 군인권법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원회는 4일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 개선 등을 골

자로 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있다"면서 "앞으로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형 감경권을 대폭 축소하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도 아직 계류 중이다.

haru@news1.kr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UG. 8, 2014 - AUG. 14,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Let's go BACK TO SCHOOL With Big Savings!

It's that time again! The kids go back to school and Hmart's everyday savings gets even better!
 즐거운 새학기 맞이, 이번주 마트에서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오성 홍 컵라면 OHSUNG Hong Bowl Noodle Soup Hot & Spicy/Kimchi 3.03oz. x 12ea./pkg. \$7.99	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도시락 김 맛/파래 0.15oz. x 8ea./pkg. \$2.99
후지 사과 후지 사과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1.49 lb.	ORION Squid Peanut Ball/Peanut Crunch Snack 오리온 오징어 땅콩/땅콩강정 5.89 - 7.12oz. \$3.99
롯데 아맛나 아이스크림 롯데 아맛나 아이스크림 2.7fl.oz. x 6ea./pkg. \$2.99	SLIM LINE Diet Power Hoop 슬림라인 다이어트 파워 후프 ea. \$22.99

HEAT WAVE Summer save event

ENJOY ALL YOUR SUMMER FAVORITES AT HMART!
 COLD NOODLES, SUMMER FRUITS, ICE CREAM AND SO MUCH MORE!

CHUNG JUNG ONE
 Vinegreat Drink 청정원 홍초세트
 식료+블루베리/식료+복분자
 30.4fl.oz. x 2btl./pkg.
\$12.49

Hmart Organic 100% DELICIOUS

마트 유기능 제품으로 더 건강해지세요.

PETE & GERRY'S Organic Med. Fresh Grade AA Eggs
 피트앤게리스 유기농 달걀
 doz./for **2\$5**

수취해소에 좋은 Korean Radish 한국 무 box \$14.99	할복순환에 도움을 주는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당류,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피부에 좋은 White Nectarine 화이트 넥타린 lb. \$1.99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긋, 해독 작용이 뛰어난 Scallion 파 3\$1 bun./for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음식!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lb. \$6.99	단백질이 많아 두뇌활동에 좋은 Whole Chicken 통닭 lb. \$1.49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5.9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4.99	Boneless Pork Loin 돈가스 lb. \$4.99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6.99	심장질환 예방에 좋은 Loligo Squid 냉동 한치 25up/lb. \$2.99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발육에 좋은 Beltfish 통갈치 900up/lb. \$2.99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lb./pkg. \$3.99	TONGTONGBAY Frozen Dried Pollock Cut 통통배 절단 코다리 (near Market Basket) 1.57 lbs. \$4.99	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엘로우) 15 lbs. \$10.99	NISHIKI Premium Grade Rice 니시키햄 15 lbs. \$13.99	BEKSUL Dashida Beef Flavor Soup Stock 백설 쇠고기 다시다 2.2lbs. \$9.99	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소스 16.7fl.oz. \$2.99
AJINOMOTO Don 아지노모토 된장 All Varieties/ 9.33 - 11.29oz. \$2.99	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oz. \$7.99	SCOTT Bathroom Tissue 스타크 화장지 20 rolls/pkg. \$13.99	PHYSIS PLIP Food Container 피시스 플립 밀폐용기 3ozs/set \$4.99	KITCHEN ART Ceramic Coated Frying Pan 키친아트 세라믹 코팅 후라이팬 28cm/ea. \$15.99	ZOJIRUSHI Functional Elec. Skillet 조지루시 전기 그릴 EP-PBC10HC/ea. \$79.9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H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야, '당 재건' 논쟁 백가쟁명식 분출...4대 쟁점은?

선명야당대 중도강화·당명 변경 여부·정의당 통합 등 놓고 논의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호(號)가 '낡은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뜻을 올린 가운데 당의 진로 및 혁신 방향을 두고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는 쟁점은 당의 노선, 계파극복 방안 및 공천률, 당명 개정 여부, 외연 확대 등이다.

곧 과도기 지도부인 '국민공감혁신위원회(이하 국민공감위)'가 공식 구성되고 나면 이와 관련한 공개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 노선은... '선명 야당론' vs '대안 야당론'

당의 노선과 관련해선 현재 '선명 야당론'과 '대안 야당론'이 선명하게 맞서고 있다.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를 전혀 다르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체제의 '중도온건 노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내왔던 당내 강경 그룹들은 '선명 야당론'과 '진보 강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슈만 따라다니는 동네축구를 극복하고, 강한 선명 야당으로 진화해야 한다. 강함의 핵심은 국민적 지지로, 국민적 지지는 야당다움에서 찾아야 한다. 당내의 여당끼를 쫓 빼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같은 날 한 토론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2017년 진보정권의 창출"이라면서 "이를 위한 길은 곧 '진보정당'의 기치를 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은 7·30 재·보궐 선거 패배가 당 노선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면서 '대안 야당론'과 '중도 강화론'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선의 박주선 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야당이 계속해서 선거에 참패하는 가장 중요한 고질병은 '투쟁하는 야당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체질개선과 혁신은 '투쟁하는 야당론'의 폐기와 '생산적 야당'으로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선의 김영환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김한길, 안철수의 공천 실패가 그대로 중도 진보주의의 몰락으로 연결되고 관념적 급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며 "그리하여 야당은 한번 더 죽어야 살 운명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영선 국민공감혁신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낡은 과거와 관행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결별하느냐가 새정치연합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쟁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계파 극복 및 공천률... 오픈프라이머리·전당원투표제 거론
공천률에 대한 당내 관심도 뜨겁다. 당장 20대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 참패의 핵심 원인으로 전략공천 등 '공천 실패'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천률 개혁 방안에 대해선 개인은 물론 각 계파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공천 제도와 관련해선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선진국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당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주의의 벽이 있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와 함께 지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당내 일각에선 전(全)당원투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 전권시대를 끊고 전당원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혁신의 제1장 1절은 전당원투표제를 통한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기득권 카르텔과 계파 공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당을 비전 있는 선명 야당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서 "(당내에) 보통선거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하는 개혁의 요체"라고 말했다.

◇당명 개정 논란... 새정치연합→ 민주당?

김·안 전 공동대표 체제 붕괴 후 '새정치연합'의 당명을 '민주당'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개명을 주장하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민들도 낯설어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로 옛 민주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당명개정 주장의 맞은 편에선 안전 공동대표에 대한 '색깔 빼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반론을 들고 나온다. '새정치'라는 단어는 그간 정치권에서 안전 대표의 상징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다만 박 위원장이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너무 이른 질문"이라고 선을 그어 조만간 당명 개정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당명 개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했다.
◇정의당과의 통합은... 시기상조? 새정치연합의 외연확대 여부도 논쟁거리 중 하나다. 당내 일부에선 정의당과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정의당과의 통합론은 7월 재보선에서도 재확인됐듯 선거 국면에서 다급하게 이뤄지는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만 가져온다는 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대체로 정의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은 편이다.

박홍근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남아 있는 통합의 대상은 정의당과 노동계라고 보지만, 이번 비대위는 혁신비대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논의해 나가기엔 여력도 없고 타이밍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박영선 비대위 체제, 야권 주최 토론회서 '뭇매'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서 이상이 교수 "박영선 대신 외부인사로 큰 수술 했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비상대책위원회인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가동시킨 가운데 당내외에서 이와 관련한 쏠림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참패 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아 박영선 대표 직무대행을 비대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대위 구성에 돌입한 바 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비례대표제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비대위에 관심없다. 기득권 세력의 논의로 갈 것"이라고 비판적인 전망을 내놨다.

천 전 장관은 "앞으로 어떤 당 지도자가 나와 전 당원 보통선거제도 도입만 제대로 해서 당의 혁신 동력을 만들어나간다면 다음 대권주자로 상위에 설 것"이라며 "비대위가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기대가 작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자로 참석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비판적 전망을 많이 한다"며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선출을 보며 '이제 (혁신은) 물건너갔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 위원장 대신 외부에서 강단있는 분을 모셔 큰 수술을 한번

해놓고 다음으로 가는 방향이었어야 한다"며 "지금 새정치연합은 당내 문제뿐 아니라 야권의 전반적 질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유종일 KDI국제대학원 교수는 박 위원장이 이날 오전 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언급한 것을 두고 "기득권 재생산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인지도 선거'가 된다"며 "당원 주권에 초점을 맞춰야 책임정당이 된다. (당내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야당이 향후 '선명 야당'으로 강경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온건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옛 민주당 시절부터 배회하는 하나의 유령이 '중도 노선'이다. 얼핏 일리 있게 들리는 말이나 역사적 경험도, 현실도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준다"며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당이 대중과 괴리돼 있다"며 "현장, 원칙으로 돌아가고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는 당이어야 국민에 사랑받을 것"이라고 제언했

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대안 야당'으로 선명성은 확보해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거친 방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차칫 혼동하면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더 무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도통합 노선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보수 의제에 찬동하는 국민도 많다. 계층 간 이해를 조정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노력하려면 중도 개혁까지 나서는 정당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smith@news1.kr

잊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박대통령, 시민들과 함께 영화 '명량' 관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려낸 우리 영화 '명량'을 관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CGV 영화관에서 영화 '명량'을 관람하고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영화 '명량'의 소재가 된 명량대첩은 임진왜란 6년이던 지난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이르는 왜군과 싸워 이긴 해전(海戰)으로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 출정하기에 앞서 선조에게 올린 장계(임금에게 올리는 보고문서) 가운데 '금신전선 상유십이, 출사역거전 즉유가위야(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이제 신에게 배가 12척 있으니 죽을힘으로 싸운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란 문구를 종종 인용한 바 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지난 2004년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신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한 충무공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당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고, 2007년 4월 한나라당 충남지역 핵심당원 간담회 때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며 포기하지 않고 대승을 일궈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본받자"고 당부한 바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영화 '명량' 관람 일정에 대해 "오늘 오전 열린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의 연속성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 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소개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국가위기 때 민·관·군(民·官·軍)이 합동으로 이를 극복하고 국론을 결집하지는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을 한마음으로 추진해나가는 뜻에서 '명량'을 관람키로 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영화관 도착 뒤 문화융성위원회인 배우 안성기씨로부터 상영관 앞에 전시된 영화속 이순신 장군 갑옷 의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안씨가 해당 갑옷에 대해 "'명량'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고증을 통해 재현됐다. 투구를 포함해 무게가 20kg"이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아이고, 무게가..."라며 "이것을 입고 영화를 찍었다는..."이라고 했다.

영화에선 배우 최민식이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다.

박 대통령은 또 안씨가 '명량'의 흥행에 대해 설명하자 "무엇보다 스토리가 좋아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영화 '명량'은 역대 최단 기간인 개봉 8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신기록을 수립 중이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날 영화

관람 뒤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아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제정하는 등 문화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면서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승을 일궈낸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국민도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영화 '명량' 관람엔 김동호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장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조윤선 정무·주철기 외교안보·윤두현 홍보·윤창번 미래전략·송광용 교육문화·최원영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일정으로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은 올 1월 첫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영화 '넛집: 땅콩도둑들'을 관람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ys4174@news1.kr

'자성의 시간' 안철수, 활동 재개는 언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7·30 재·보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별다른 외부활동 없이 조용히 자택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1년4개월간 독자신당 추진, 민주당과의 합당, 6·4 지방선거, 7월 재보선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만큼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를 갖고 있다고 측근들은 입을 모았다.

안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한 터라 자성의 시간은 당분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그동안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달려왔으니, 반추도 해보고 스스로 정돈할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도 "안 전 대표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전망이나 비전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 대신 안 전 대표측은 향후

안 전 대표의 정치 재기에 대비해 활로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안 전 대표측 시·도당 위원장단 등 인사들은 안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지난달 31일에 이어 지난 3일에도 회동을 갖고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안 전 대표측 시·도당 위원장들과 사무처장들이 회동했을 당시 한 핵심인사를 통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신은 백의종군을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 전 대표측인사들에게 '활발한 움직임'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안 전 대표측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측근들에게 '저는 백의종군을 하겠다. 지역에서는 움직이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청춘콘서트 등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부 측근들은 "당분간 그런 이벤트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측 내부에선 안 전 대표의 '정치실험 실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애초에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것은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공간, 다양한 생각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얘기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한 개인의 역량이나 훌륭함이라고 착각하고 기대 시작 한 것이 실패의 단초가 아닌가 한다"며 "우리가 애초에 특정인에 대한 흠모나 애정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 개인에게 지나치게 기댔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안 전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측의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의 지난 1년4개월을 돌아보면 꼭 잘한 것만 있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활발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안 전 대표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해 많이 후회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직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금태섭 "안철수 개인에 기대기 시작한 게 실패의 단초"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측근인 금태섭 전 당 대변인은 5일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제기되고 있는 안 전 대표의 '정치실험 실패론'과 관련, "언제부터인지 한 개인의 역량이나 훌륭함이라고 착각하고 기대기 시작한 것이 실패의 단초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금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몇 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애초에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것은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공간, 다양한 생각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얘기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 우리 편이라고 해도 잘못했을 때는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잘 할 때는 동의해주는 태도 같은 것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애초에 특정인에 대한 흠모나 애정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나는 2012년에 모였던 300명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때만큼 희망에 차 있던 때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먼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억울함, 변명,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해왔다는 보잘 것 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고, 다시 모여서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저런 대안들이 튀어나오고, 그 대안들의 다양성의 폭은 놀라울 정도로 넓은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지나온 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잘못 접어든 길목이 어딘지 알아야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전체로서의 유권자 집단은 대체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왔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 터무니 없는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지지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스스로 알아보고 밝히는 것은 당연한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자칫하면 그 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애초에 있었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때문에 시도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려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박영선 호 전환 후 첫 합의

넓은 관행, 투쟁 정당 이미지 벗기 위해 결단 여당 요구 전면 수용 백기 합의란 비난 거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가 7일 난항을 겪어왔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결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비상체제로 전환한 박영선 호(號)의 첫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 방향과 관련해 "넓은 과거와 관행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결별하느냐가 새정치연합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쟁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의로움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근간을 둔 생활정치의 실현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합의가 사실상 야당의 양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 위원장이 이번 결단을 통해 '넓은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자신의 의

지를 명확히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강경파'로 평가받아온 박 위원장이 강경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생생적인 야당'의 기조로 변모를 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유가족들의 요구안이나 당내 다수 의원들이 지지한 요구안엔 미흡할지 모르지만, 세월호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대화되기 전에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추천 안에 대해서조차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선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장이 유가족 등 당 안팎의 반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

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여당에 끌려가는 행위만 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이 무엇인데,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느냐"라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그간 유가족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까지 하며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 유가족 참여 보장 중 무엇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일단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해왔던 의원들을 통해 이번 합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법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유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김장훈이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단식에 동참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바로 여당의 조건을 전면 수용하는 합의로 김장훈의 의지를 꺾었다.

유족이 믿었던 박영선 왜?

(서울=한겨레) 세월호 참사 99일째인 지난달 23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빗속을 걸었다. 이튿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러 경기 안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오는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던 박 원내대표가 7일 자신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새누리당과 특별법에 합의를 하고 나자, 유족들은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면 탈출 시도에 들러리를 섰고, 그 정점엔 박영선 원내대표가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며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겨레〉와 만나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

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에 타진했으나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 여당 쪽 추천 인사보다 야당·유족 쪽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당은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2명만 주자고 했고, 우리는 3명으로 하자고 했다"며 "그토록 버티던 새누리당이 오늘 유족 추천을 3명으로 하자고 물러서기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상설특검법을 박 원내대표 본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원을 한명 더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리적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가 맞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소통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여당과 협상을 벌이면서 유족들과 의견 조정을 해왔는데, 정작 결정적 국면에 이르자 이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채 덜컥 합의를 해버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전해철 태스크포스(TF) 간사, 특별법안을 만든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현미 세월호 국정특위 간사 등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한 당직자는 "다음주 교황 방문을 맞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끓어오를 때 그에 너지를 모아 다시 한번 특별법 투쟁을 할 수 있었다"며 "왜 이렇게 빨리 합의해줬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야당다운 선명성'에도 생채기가 났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박영선도 별로 다른 게 없다" 등 야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폭주했다.

edigna@hani.co.kr

세월호 유가족, 여야 합의에 반발 특별법엔 "수사권 꼭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해 수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특별검사 추천권마저 야당에서 가지지 못하고 기존 상설특검 절차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들은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며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들러리만 섰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

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진상조사위를 여당과 야당, 대법원+대한변협, 유가족이 5:5:4:3 비율로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 추천을 기존제도 대로 하게 된다면 앞서 진행했던 특검결과대로 나오는 것은 자명하다"며 "아무리 좋은 의결권을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내용을 빼버린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추후 계획과 관련해 유가족 의견을 수렴한 뒤 8일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이와 상관없이 유 대변인은 이날부터 물과 소금도 먹지 않는 금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교재가 확실하다!
- 교사진이 확실하다!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이높이(Enopi) 교재** 사용!
-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한국,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체!
- 셋째, 붓글씨, 탈춤, 부채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BKS 등록금 안내

Registration Fee: \$20/Family/Year
 Tuition: Half Year (16 Saturdays)
 Regular Classes:
 \$290 (one child)
 \$540 (two children)
 \$73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80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6 2014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물병, 스낵

26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4-2015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보스톤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새벽기도회 :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츠 &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Walnut Pastry
cocohodo

코코호도과자에서

프랜차이즈 원하시는 분을 모십니다

Review Application, Interview Application, Market Research Feasibility Study, Approval Timeline, Social Media, In-store Training, Classroom, Design Drawing

서울: 01-588-1303, FAX: 031-339-4080
LA: 213-448-7417, 714-870-4003
MA: 212-230-1002

작은 금액 사업 시작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ditional help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JEI Math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Problem Solving Math
JEI Korean / 재능한글

FREE Enrollment June 1-30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생칼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달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YES CLASS]
 HATS • READING • WRITING
사업설명회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교육사업 YES CLASS



지역 설명회

일시 : 8월 9일 (토) 8:00pm

장소 : Sheraton Hotel
 1657 Worcester Rd.
 Framingham, MA 01701



강사 : 박순우 대표
 YES CLASS 대표이사 / 교육사업 전문 컨설턴트
 YES CLASS 대표이사 / 교육사업 전문 컨설턴트
 YES CLASS 대표이사 / 교육사업 전문 컨설턴트

▶ 참석 문의: 201-410-8797 / info@yesclass.com
 YES CLASS, LLC : www.YesClass.com

▶ 참석 대상: 구몬 러닝센터 같은 교육 사업에 관심 있는분
 E2사업체로 교육업종을 찾고 있는분
 기존 학원을 운영 하고 있는분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교육 자료 제공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츠 프리시즌 경기 관전 포인트



올해 합류한 코너백 대럴 레비스는 트레이닝 캠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1월에 AR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하고 경기장을 떠난 후 정확히 200일 만에 모든 보호장비와 유니폼을 갖추고 경기장에 선다. 패트리어츠는 2014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7일 워싱턴 레드스킨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4주간 프리시즌 경기를 갖게 된다.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전 선수들의 기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선수들에 대한 최종 평가가 프리시즌 경기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패트리어츠는 물론, 상대 팀에서도 인기가 많은 스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패트리어츠의 타이트 엔드 탑 그롱코스키는 확실하게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쿼터백 탐 브래디와 코너백 대럴 레비스 등의 다른 주전 선수들도 출전 시간이 제한적일 것이다.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치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레드스킨스의 제이 그루텐 감독은 주전

선수들은 8-10번의 플레이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번째 수퍼볼을 노리는 패트리어츠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부상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힘든 시즌을 보냈다. 부상은 시즌 중에 발생할 수 있지만, 훈련이나 프리시즌 경기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미 패트리어츠는 트레이닝 캠프에서 타이트 엔드 마이클 후마나와누이가 다리를 다쳤고, 디펜시브 태클 실

버 실리가가 손에 부상을 입었다. 그롱코스키를 비롯하여 빈스 윌포크, 제로드 메이요 등 지난 시즌에 큰 부상을 입고 올해 시즌에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다.

주요 선수들이 정규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다면 전력의 누수가 커지게 된다. 브래디, 레비스, 줄리언 에들먼, 찬들러 존슨 등의 핵심 선수들은 출전 시간을 줄이더라도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백업 쿼터백

정규시즌이 시작하면 브래디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백업 쿼터백이 출전 기회를 갖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라이언 맬렛과 드래프트로 합류한 신인 쿼터백 지미 거라폴로가 출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리시즌 경기는 맬렛에게 중요하다. 브래디의 백업 쿼터백인 맬렛은 패트리어츠에서 지난 3년 동안 단지 4번의 패스만을 했을 정도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올해 역시 브래디가 있는 한 맬렛은 출전도 해보지 못하고 한 시즌을 보낼 수 있다.

맬렛은 올해가 패트리어츠와의 계약 마지막 해다. 맬렛은 실제 경기에는 많이 출전하지 못했지만 주전 쿼터백에 못지 않은 기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만약 맬렛이 올해 시즌을 끝으로 자유 계약 시장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프리시즌 4경기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3. 타이트 엔드

타이트 엔드는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다. 건강한 그롱코스키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의 부상에서 회복 중이고, 그 뒤를 받쳐 주는 후마나와누이와 디제 윌리엄스가 모두 트레이닝 캠프에서 부상을 당해 제대로 훈련을 못하고 있다.

패트리어츠에는 주전 타이트엔드 3명 외에도 언드래프트로 팀에 합류한 루키 타이트 엔드가 3명이 있다. 주전으로 분류되는 타이트 엔드 3명이 모두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그다음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55

Every hole is a new hole



다. 열여덟개의 홀로 이루어진 한번의 라운딩 내에서도 같은 홀은 없다. 각기 다른 홀이 기다리고 있고 각기 다른 샷들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새로운 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는 상반된 2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항상 새로이 극복해야 할 새로운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이버 샷을 엄청나게 잘 쳐 놓고서 두번째 샷을 엉뚱하게 실수 하는 바람에 더블보기로 홀아웃을 하는 경우를 대부분의 골퍼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어떤 홀이든간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샷이라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샷을 해야만 한다. 언제 어디서 의외의 변수를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프로 선수들이 한샷 한샷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의외로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에 섬세한 정성을 쏟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수롭지 않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호랑이가 토끼 한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많이 쓰라는 말은 아니다

. 실사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정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다. 골프라는 경기의 흐름에 맞게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언제 어느때 새롭게 등장할지 모르는 어려움의 변수를 최소화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둘째로, 항상 새로운 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홀에서 실사 잘못 경기 운영을 했다손 치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번째 홀이 기다리고 있다. 두번째 홀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세번째 홀이 역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8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초보 골퍼들의 경우는 이렇게 한 홀이라도 자신이 만족해 할만한 홀이 있으면 그 것으로 즐거운 라운딩이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다. 실력이 늘어갈수록 이렇게 만족해 할 수 있는 홀의 갯수가 늘어가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실력에 맞게 눈높이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홀에서 다 잘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게 좋은 것이라며 너무 성의 없게 건성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그 또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한 점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이 참 아름다울 것이다.

가로 세로가 각각 19줄로 이루어진 바둑판 위에서 이루어진 바둑의 대국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뤄진 기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바둑판에서 같은 바둑돌을 가지고 같은 사람이 바둑을 둔다 하더라도 매번 다른 바둑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고요하고 단순한 가운데 변화무쌍한 다양함이 바둑판 위에 있다는 것이다.

수십 에이커에 이르는 넓은 자연 위에서 펼쳐지는 골프라는 운동 또한 수많은 변수가 함께 한다. 한 골프장에 회원권을 사서 일년내내 골프를 친다 하더라도 똑같은 골프 라운딩은 있을 수 없다. 항상 새로운 라운딩이 이루어진

2014년 제4회 대학연합 친선 골프 대회

제4회 NE지역 대학동창회 친선골프 대회를 모음이 8월 23일(토)
 Stow Acres Country Club, North Course에서 열립니다.
 2010년 7개 대학이 모여 나눈 화목함과 친선의 기회를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이 친선과 화합의 행사에 NE 지역 7개 대학 및 다른 대학과
 미국 대학교 졸업생 모두 초청합니다.
 Scramble 경기 운영으로 초보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점심과 저녁식사, 트로피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은 성적보다는 여러 분이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 8월 23일(토) 오후 12시 30 분 tee-off (11시 45도착 도착 필요)
장소: Stow Acres Country Club (North course)
참가비: \$100/pp
참가신청: 이재규(jaeqlee@gmail.com; 978-314-9620)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1년 학비 \$3,600!!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송경빈
978-844-1508



Jerry Song
978-886-9695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99,000
Newton, MA
2 beds, 2 baths, 1226 sf.
Perfect home for first time home buyer
OT Kim 617-620-8242



\$529,900
Lexington, MA
2 Beds, 1 Baths, 816 sf.
Amazing opportunity to own house in Lexington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콘도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70,000
Newton, MA
3 Beds, 1.5 Baths, 1788 sf.
대중교통, 하이웨이 진입 편리
Jason Jeon 617-642-5670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가정 상담 / 24시간 24시간 / 24시간 상담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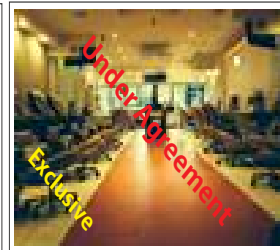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1 August 8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49

유대음식과 현대의 만남 홈메이드 퓨전 요리
'제프티그 델리카테센(Zaftigs Delicatessen)'

제프티그 델리카테센
(Zaftigs Delicatessen)

335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975-0075
www.zaftigs.com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제프티그 델리카테센(이하 제프티그)은 전통적인 유대 음식 조리법과 현대 조리법을 접목시켜 새로운 Jewish 스타일의 퓨전 음식을 선보인다. 대부분 동유럽에서 유래된 Jewish 요리를 현대인에 맞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제프티그의 대부분 요리는 '홈메이드'다. 상업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품목을 17년 넘도록 '홈메이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감자튀김, 베이글 등을 제외하고 95%이상의 음식과 재료를 식당에서 직접 만든다. 사들여오는 베이글이나 패스트리도 매일 신선하게 공급받는다.

불필요한 인공적인 양념이나 재료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 것이 제프티그 음식의 특징이다. 짭짤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약간 아쉬울 것이다. 그래서 인지 차와 함께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많이 즐기는 중국인보다는 일본, 베트남,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제프티그의 또다른 특징은 'Guest Friendly', 즉 고객에게 음식을 맞춘다는 것이다. 대부분 미국

레스토랑은 재료 대체(Substitute)를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체더 치즈 대신 아메리칸 치즈, 비네그트레싱 대신 렌치로, 튀긴 새우 대신 삶은 새우로 해달라 등등이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식단이 분명하기 때문인데, 제프티그는 이 점을 높이 존중한다. 기존 메뉴에 있는 치즈, 드레싱, 빵, 속재료 등을 고객이 원하는대로 조절해주고, 고객이 거부한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요리한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 글루텐 프리 빵을 원하면, 토스터기를 따로 사용하고 다른 빵을 자르는데 사용한 도마와 접촉하지 않도록 도마 위에 랩을 까는 등이다. 간단한 것 같지만 바쁜 레스토랑 부엌에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춰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제프티그는 점심 시간부터 음식을 주문하면 얇게 구운 베이글과 크림 치즈가 에피타이저로 제공한다. 이스라엘 쿠스쿠스 샐러드 (Israeli Couscous Salad)와 감자 샐러드가 같이 나오는 콘 비프 델리 샌드위치 (Corned Beef Deli Sandwich)를 주문했다.

이스라엘 쿠스쿠스 샐러드는 보리 같은 모양과

식감의 견과류가 살아져 구운 치킨, 야채, 크렌베리, 호두 등과 함께 나왔다. 그저 맛있는 미국식 샐러드와 달리 상큼하고 고소함이 풍성한 맛으로, 건강



한 밥을 먹은 느낌이였다. 샌드위치는 베이 잎 (Bale Leaf)으로 밤새를 잡고 기름기를 쏙 빼 고기가 가득 채웠다. 담백한 고기와 싱싱한 야채의 조화. 거기에 홈메이드 감자 샐러드까지 곁들이면 간이 딱 좋다.

제프티그는 아침, 브런치,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한다. 테이크 아웃은 물론, 배달전문업체 Dining In (Diningin.com)를 통해 주문하면 배달도 가능하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한다.

epark@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새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술/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연구학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연구학회(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콜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우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재단연합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베냐민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사울스대학동창회	802-734-2521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렐교회	978-274-2369
엘화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645
엘화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주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남궁연골프코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피니언스	617-799-6158

뱅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점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터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팅클럽	617-331-1011
던요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룸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781-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퀘인	617-777-1735
헤어 센스	617-78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원홍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제멘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647-960-58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0-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자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휠리카온셀링	508-728-0832
인디그라디안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치주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미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음용/무기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피니언스	617-799-6158

ASHLAND FAMILY DENTAL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랜트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8/15
울스톤에 있는 식당
주방보조 아주머니와 케슈어 구함.
T. 617-319-2833

8/22
세탁소 카운터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우스터 지역, 파트타임
T. 617-512-2758

8/29
체스넛힐 레드망고
주방 보조 하실 분 구합니다.
T. 617-795-0376

8/29
렉싱턴 입주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T. 617-340-9624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8/29
우번 방렌트,
유틸리티 포함 \$500
T. 781-910-4433

4/25
N [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4/25
N [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6/13
N [매 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6/13
N [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6/13
N [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6/13
N [구인]
돌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보스톤 코리아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 기자 경험자 우대
- 근무조건 : 샐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 모집마감 : 8월 22일
-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괜찮아 사랑이야’ 이성경, 빼박한 여고생 역할 눈길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괜찮아 사랑이야'에 출연 중인 배우 이성경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이성경은 교복에 백팩을 멘 빼박한 여고생 '오소녀'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녀는 장재열(조인성)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다. 엄마는 3살 때 집 나가 가끔 돈만 주러 오고 고물 줍는 아버지는 발동 걸리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온다"며 막무가내로 장재열에게 잠을 재워 달라고 했다.

이에 재열이 열쇠 아저씨를 부르라

며 돈을 주자 "담배 사 먹어야지"라며 지드래곤의 '빼박하게'를 부르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성경을 비롯해 배우 공효진, 조인성, 이광수 등이 출연 중인 SBS '괜찮아 사랑이야'는 매주 수,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괜찮아 사랑이야' 이성경을 접한 누리꾼들은 "괜찮아 사랑이야 이성경, 매력 있네", "괜찮아 사랑이야 이성경, 대박 나길", "괜찮아 사랑이야 이성경, 드라마도 재밌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괜사’ 조인성·공효진, 그림 같은 계곡키스 “로맨스 시작?”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과 공효진이 계곡 키스를 나눴다.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장재열(조인성 분)과 지해수(공효진 분)가 콘서트를 보러 계곡 근처에 갔다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장재열은 이날 방송에서 지해수와 산책을 하며 "어릴 적 아버지한테 맞고 도망치다가 푸세식 화장실에 숨은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재열은 "그 뒤로 화장실에 나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됐다"며 "사실 침대에서 안 자고 화장실에서 잔다"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지해수는 장재열의 말에 무덤덤하게 "내가 아는 강박증 환자는 개집에서도 잔다. 내 병이 큰 병이다. 성인이 돼도 남자랑 잡자리가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장재열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장재열은 지해수를 계곡물로 끌고 들어가 물놀이를 즐겼고, 환하게 웃는 지해수에게 기습 키스를 해 본격적인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공효진, 본격 로맨스 시작인가",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트라우마 고백 슬프더라",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공효진, 오늘 방송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보람 인내의 다이어트 성공 “인간 승리”

(서울=뉴스1) 온라인팀 = Mnet '슈퍼스타K 2' 출신 가수 박보람이 데뷔곡 '예뻐졌다'를 공개했다.

박보람은 7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예뻐졌다'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타이틀곡 '예뻐졌다'에는 씨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Touch My Body)'를 프로듀싱한 블랙아이드 필승의 라도, 정기고&소유의 '썸' 믹스 마스터링을 한 마스터키, 그룹 블랙비 지코가 작업에 참여했다.

'예뻐졌다'는 힙합리듬이 결합된 미

디움 템포 곡으로,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멜로디에 전반적으로 깔리는 복고풍 피아노가 인상적이다.

'예뻐졌다'의 가사는 예뻐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달라진 모습으로 자신감을 얻어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4년간 32kg을 감량한 박보람의 실제 경험담을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박보람은 소속사를 통해 "드디어 내 노래를 들려드리게 되다니 설렘과 동시에 많이 긴장된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보람은 "저 스스로에게는 과거 변신이다. 지난 4년 동안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외모만큼 내실을 다졌다. 아쉬움 없이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박보람 '예뻐졌다' 공개에 누리꾼들은 "'예뻐졌다',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길", "'예뻐졌다', 가사 정말 공감돼", "'예뻐졌다' 박보람, 경험담을 쓴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라디오스타’ 정유미, 연우진 이상형 지목에 “술 한잔 할까?”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연우진이 정유미가 이상형이라고 깜짝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는 배우 정유미, 손병호, 연우진, 도희가 출연해 '보기

보다 웃기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 MC 윤종신은 "연우진이 사전인터뷰에서 '정유미 같은 스타일을 정말 좋아한다. 공개연애도 하고 싶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연우진은 "정유미 같은 털털하고 수더분한 여자가 이상형"이라며 "외모적으로도 정유미 씨처럼 동양적으로 생긴 사람이 좋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유미 역시 "연우진은 사람이 정말 좋다. 고민을 이야기할 때 통한다는 느낌이 들기 쉽지만 잘 맞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MC들은 "지금 꼭 사귀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며 의심했고, 정유미는 연우진의 어깨를 톡 치며 "술 한잔 할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라디오스타' 연우진-정유미, 정말 호감 있는 거 아니냐?", "'라디오스타' 연우진-정유미, 다정한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 "'라디오스타' 연우진-정유미, 성격이 잘 맞는듯", "'라디오스타' 연우진-정유미, 이런 게 썸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7월 28일 ~ 8월 3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5.0%



2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23.9%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19.6%

- 4 KBS1 KBS9시뉴스 17.8%
- 5 KBS2 개그콘서트 15.9%
- 6 KBS1 전국노래자랑 14.0%
- 7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3.7%
- 8 KBS2 해피선데이 13.5%
- 9 MBC 일밤(아빠어디가, 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 12.7%
- 10 MBC 무한도전 12.6%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Touch My Body 씨스타
- 02 한여름밤의 꿈 San E
- 03 Darling 걸스데이
- 04 HER 블랙비
- 05 눈, 코, 입 태양
- 06 빨개요 현아
- 07 명수네 떡볶이 박명수
- 08 단발머리 (Short Hair) AOA
- 09 이제 그만 싸우자 허각
- 10 JACKPOT 블랙비

숫자 퍼즐 (Sudoku)

7				5			8
	3	9				7	5
				8		9	
1		8		2			4
	6					7	
2			3			6	1
	1		7				
	2	6				8	4
4			5				9

8월 10일 - 8월 1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 운수: 지붕 위에 까치가 우는 격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일에 희망적이고 밝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주고 있으니 금전적인 면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충동적인 결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 애정: 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는 때입니다. 상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

토끼띠 | 백보 전진을 위해

● 운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물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 금전: 백보 전진을 위해 알보후퇴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 애정: 이미 마음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환경 때문에 뛰어넘어야 할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6일 길일, 13, 15일 주의.

말띠 |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 운수: 외부로부터 이런저런 일에 대한 제약이 들어오면서 변화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 금전: 서서히 계획에 왔던 것을 실행할 시기입니다. 한번쯤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흔들리던 마음을 바로잡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6일 길일, 10, 12일 주의.

닭띠 | 기쁨으로 행복이 가득한

● 운수: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매문제가 드디어 성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쓴 보람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 애정: 마주보는 기쁨으로 행복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떨어져 있는 연인은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으로 보내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2일 주의.

소띠 | 앞날의 즐거움이 기대되는

● 운수: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더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금전: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앞날의 즐거움이 기대되는 주입니다. ● 애정: 말이란 아껴야 모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내 얘기를 전하는 것 못 지않게 상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0, 14일 길일, 13, 16일 주의.

용띠 |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는

● 운수: 외국에 나가거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이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일이 풀립니다.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 애정: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양띠 | 사소한 말 한마디가

● 운수: 그동안 고인 일이 풀려나가면서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됩니다. ● 금전: 순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도 손해로 바뀌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좋겠지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개띠 | 비로소 빛을 보게 되는

● 운수: 불황의 늪을 인내로 헤쳐 비로소 빛을 보게 되는 희생의 시기입니다. 우울이나 좌절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나아집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도 되찾게 됩니다. ● 애정: 불편했던 부부관계나 이성 관계에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멀어졌다고 느끼던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군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

범띠 |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 운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금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맘 흘려 일한 사람들입니다. ● 애정: 부부관계도 서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베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다투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4일 주의.

뱀띠 |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 운수: 절망하기는 쉽고 희망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금전: 계약상의 과실 등으로 생활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원리원칙만 주장하다 보면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3일 주의.

원숭이띠 | 미리 확실하게 해두어야

● 운수: 자그마한 것이 여럿이 모여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큰 것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까. ● 금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실하게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여기저기서 이성의 유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2일 주의.

돼지띠 |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 운수: 제아무리 좋은 연정이라도 안 쓰면 녹스는 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까. ● 금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큰 것을 바라다면 작은 것조차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군요. 마음의 문을 열어 대화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6일 길일, 13, 14일 주의.

‘해적’ 북미 개봉 확정, 韓 코미디 통할까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인턴 기자 = ‘해적’ 이 블록버스터의 본고장인 북미 지역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6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감독 이석훈)은 칸 영화제 마켓에서 선 판매했던 15개 국 영화 중 북미 개봉을 가장 먼저 확정지었다.

당시 칸 영화제 마켓에서 한국은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대만, 태국, 인도, 남미, 미얀마 등 보다 가장 많은 국가에 선 판매를 이뤄냈다. 바이어들은 ‘해적’의 완벽한 CG와 퀄리티, 규모감, 화려한 액션, 대중성 등을 높이 샀다.



‘해적’은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변호인’, ‘도둑들’의 북미 배급을 담당했던 웰고 USA (Well Go USA)를 통해 북미 관객들과 만난다. 웰고 USA는 텍사스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를 배급하는 영화사로 영화 ‘용의자’, ‘신세계’, ‘아저씨’ 등의 작품을 미국에 소개했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세력이 벌이는 바다 위 통쾌한 대격전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물이다. 북미 개봉은 오는 9월12일이다.

이수만·양현석·서태지, 연예인 빌딩부자 톱3 “합쳐서 1600억”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이수만, 양현석, 서태지가 ‘연예인 빌딩부자 TOP 3’에 이름을 올렸다.

6일 재벌닷컴은 7월 말 기준으로 유명 연예인 40명이 보유한 빌딩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빌딩을 보유한 연예인은 모두 18명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이 소유한 강남 압구정동 소재 빌딩 두채의 실거래 가격은 650억원으로 연예인 빌딩부자 1위를 차지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보유한 합정동 소재 빌딩의 실거래가는 510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가수 서태지가 논현동과 묘동 소재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44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전지현은 여자 연예인 중 최고 빌딩부자에 올랐다. 전지현이 보유중인 서울 논현동과 이촌동 소재 빌딩의 실거래가는 230억 원이다.

이수만·양현석·서태지가 빌딩부자라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만·양현석·서태지, 정말 대단하네”, “이수만·양현석·서태지, 100억 이상이라니”, “이수만·양현석·서태지,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빌딩 부자 연예인, 1등은 누구?

말 대단하네”, “이수만·양현석·서태지, 100억 이상이라니”, “이수만·양현석·서태지,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희 "회사서 김수현 급 아니면 사귀지 말라더니..."

(서울=뉴스1스포츠)명희숙 인턴 기자 = 도희가 모태 솔로라고 고백했다.

결그룹 타이니지 멤버 도희는 지난 6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21년째 모태 솔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본부장님이 원래 배우 김수현 급 아니면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좀 만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최홍만, 서장훈같이 키 큰 사람들이 도희같이 작은 사람들은 좋아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본 누리꾼들은 "도희 김수현에게 관심 있나", "도희 모태 솔로라니 믿을 수 없다", "도희 얼른 연애해서 연애담 예능에서 듣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시작부터 마감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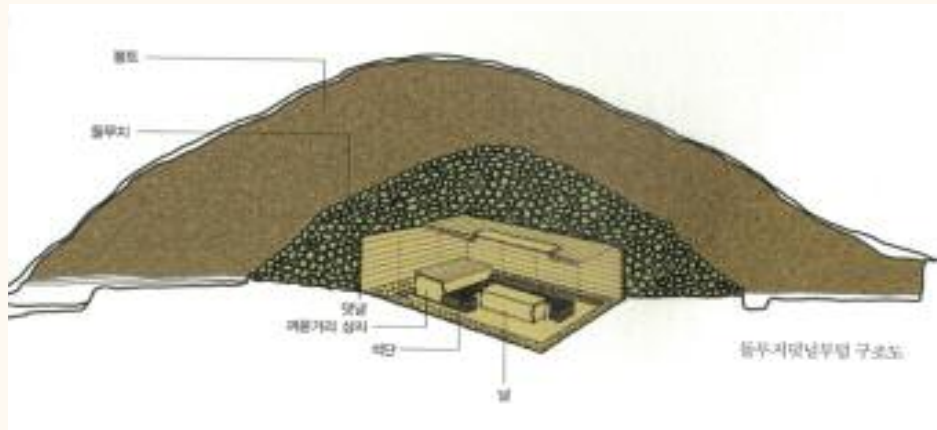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 씨의 뿌리 (7)〉

신라 김씨, 흉노의 풍습을 따르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적석 목곽분 단면도

예전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국 신화를 앞세우고 나라가 태어났다. 중국의 3황 5제, 일본에는 천조 대신 강림신화가 있고 로마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개국신화가 있다. 아시아 각국의 건국 시조 탄생신화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북방유목 민족들은 천신강림 신화가 많고, 남방 농업 국가에는 난생 신화가 많다.

한반도에서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볼 수 있다.

고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탄생 신화는 난생신화이고 고조선 환웅은 천신강림 신화가 된다. 김수로왕은 난생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남방 농업 민족의 난생 신화와 북방 유목 민족의 천신강림 신화를 합쳐 놓은 모양새가 되었다.

북방 유목 민족인 김수로 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왕이 되려고 했다면 남과 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국 신화를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구지봉 정상에서 김수로왕이 가야의 왕을 자칭하는데 원주민 대표인 9간들이 동의하고 화답하는 장면은 양자가 모두 만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는 왕도 아니었고 더구나 창엽지 주인 태조(太祖)도 아니었는데 하늘에서 금궤를 타고 내려온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건국 설화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허황되고 과장된 이야기로 전말이 엮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새로이 나라를 건국하는 이유를 절대자인 하느님이나 신의 의지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국신화, 탄생신화도 인간이 만든 이야기라서 그 속에서 당시 종족의 원류나 시대 상황의 실마리를 잡아내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왕도 되지 못한 김알지가 무슨 연유로 탄생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삼국사기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었다. 김알지가 태어날 무렵에 이미 또다른 김씨들이 있었고 그 김씨들은 이미 권력의 정상에 있었다는 것이다.

신라 제5대 파사(婆娑) 이사금(AD 80 - AD 112)의 왕비는 갈문왕 하루의 딸로 사성부인(史省夫人) 김씨(金氏)였다.



스키타이 이시코 표형분 (쿠르간)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는 AD 65년에 태어났으니 파사 이사금이 왕이 되는 AD 80년에 김알지는 15세의 소년으로 파사왕비 김씨와 동년배이거나 더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더구나 파사왕비의 아버지 갈문왕 하루와는 한 세대 차이가 나게 된다. 이것은 김알지가 태어나기 전에 또 다른 김일제의 후손이 갈문왕이라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신라 건국 초기에는 보통 왕의 형제, 왕비의 아버지, 큰 세력가에게 갈문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왔다. 신라 건국 초기에 갈문왕은 대단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

제6대 지마 이사금(112-134)도 갈문왕 마제의 딸을 왕후로 삼았는데 역시 김씨였다. 제 9대 벌휴 이사금(184-196)은 석탈해의 손자로 그의 어머니 역시 김씨였다.

제11대 조문 이사금(230-247)은 갈문왕 구도의 딸이니 구도는 김알지의 6대손이 되고 구도의 아들이 13대 미추왕으로



경주 대릉원 적석 목곽분

AD 262년에 김씨로는 처음으로 신라 왕이 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처럼 김알지 탄생 전후로 해서 신라 왕비는 거의 김씨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김씨들의 입지와 세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김알지 탄생 신화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17대 내물 이사금(356-402)부터는 김씨가 신라 왕위를 독점하면서 김씨들은 그동안 축적해두었던 역량을 동원하여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문화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

신라 왕가의 묘제도 종래의 목관묘(BC2세기 - AD2세기) 목곽묘(AD2 - 3C)에서 흉노 스키타이 묘제인 적석목곽묘로 바뀌버린다. 전세계에서 적석목곽묘를 사용한 민족은 흉노, 스키타이와 신라가 유일하다.

전세계 어느 민족도 묘제는 자신들 조상의 묘제를 따르게 마련이다. 김씨가 신라왕을 독점하자마자 흉노식 묘제인 적석목곽분으로 바뀌버린 것은 신라 김씨의 원류가 흉노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9대 눌지 마립간(AD417-458) 때는 왕의 호칭도 이사금에서 흉노식인 마립간으로 바뀌버렸다. 마립간은 흉노말로 머리라는 뜻이고 간은 수장을 의미한다. 마립간은 으뜸가는 수장이라는 뜻이다. 내물 이사금은 미추왕의 조카로 왕이 된 사람이다. 그가 미추왕의 딸을 왕비로 삼았으니 사촌간에 결혼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동성결혼, 근친결혼을 했다고 비난하기를 “부인을 취함에 동성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부부가 유별한 것을 두드러지게 하고자 함이다. 신라가 동성이나 사촌을 취하여 부인으로 하는 것은 비록 풍속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1)중국의 예속(예법)으로 이를 판단한다면 대단한 잘못이다” 라고 혹평했다.

김부식은 북방 기마 민족의 풍습인 형사 취수(兄死娶嫂) 제도를 신라 김씨 왕가가 답습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 것이다.

형사취수란 아버지나 형이 죽으면 아들이나 동생이 계모나 형수를 취해 함께 사는 제도로(수계혼) 이러한 제도가 흉노 사회에서 생겨난 배경은 남편을 잃은 과부나 그 자식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과부가 재가를 하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렵게 벌어들인 재산을 잘라내지 않으려고 이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신라 김씨 왕조에도 형사 취수 풍습이 있었고 그 습속이 고려 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고려 때 충선왕은 부왕 총렬왕이 죽은 후 서모인 숙창원비를 맞아 숙비로 봉했었다.

신라 김씨 왕조의 형사 취수 행태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흉노의 예를 하나 소개한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4명의 특출나게 잘생긴 절세 미인들이 있었다.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4명이다. 전한(前漢) 원제(元帝) 때 흉노의 호한야 선우가 왕소군을 알씨(閼氏: 선우의 왕비)로 삼아 ‘이도지아사’란 아들을 낳았다. 몇해 후에 호한야 선우(황제)가 죽자 호한야 선우의 또다른 부인의 아들 복주누약제 선우가 왕소군을 알씨로 맞이하였다. 부왕의 부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다.

신라 김씨가 신라 왕을 독점하면서 묘제가 흉노식인 적석목곽분으로 바뀌고 왕의 이름도 흉노식으로 마립간이라고 부르며 흉노처럼 형사 취수 풍습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신라 김씨의 실체가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해

(1)김부식은 중국에는 형사 취수가 없었다고 했지만 모르고 그리 기록했을 것이다. 수양제는 부왕 문제의 후궁을 취했고 당태종은 형과 동생을 죽이고 그 부인들을 취했으며 당고종은 부왕 당태종의 후궁 무씨(측천무후)를 취했다. 당현종은 아들의 부인 양귀비를 빼앗아버렸으니 이것은 수나라와 당나라 왕실이 흉노의 분파인 선비족이어서 형사 취수에 관대하기 때문이었다.



고령 대가야 적석 목곽분



가슴이 뜨겁다.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할 영화!
8월 15일 광복절 대개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

명량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 최민식

8월15일 대개봉

Showcase Revere: 565 Squire Rd, Revere, MA 02151 (781) 284-5701

영화 및 극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CJ-Entertainment.com 그리고 페이스북 〈Asian movies N more〉을 참고 하세요

아시아나와 함께 하는 특별 이벤트! 〈명량〉도 보시고 한국도 다녀오세요!

명량을 보신 후 영화 티켓 사진을 이메일 (CJkoreanMovi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2분께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을 드립니다.
기간: 8월 15일~8월 24일 밤 12시 (PST 기준) 자세한 사항: www.CJ-Entertainment.com 참조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A380, 아시아나380이 8월 20일부터 LA ↔ 인천 운항을 시작 합니다.

A STAR ALLIANCE MEMBER ☆

아시아나항공



한담객설閑談客說: 대기만성大器晩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달력으로는 아직 한창 여름이다. 하지만 새벽녘에는 가을냄새가 난다. 마음이 벌써 서늘해졌다. 곧 귀뚜라미가 울겐가. 보스톤에도 귀뚜라미가 있던가. 방충제 덕에 멸종되었나?

한 주일 모두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는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처럼 인사했다.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한다. 축구는 축구로만 즐겨야 한다. 텔레비전 연속극과 코미디는 연속극과 코미디로 봐야하는 것처럼 말이다. 코미디를 보면서 교훈적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다. 현대, 한국정치는 정치로만 보여지지 않는다. 때때로 이주일식 코미디처럼 보여지고, 레드삭스 게임처럼 흥미진진하다. 게다가 응원하는 선수가 있다면 게임은 더 재미있다. 하긴 보스톤에서 애틀란타

와 시애틀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건 재미가 덜하다. 시간내서 쳐다볼 일도 없다.

한국에서 재선거가 끝났다. 극적인 드라마를 엮어냈다고 언론에선 호들갑이다. 내가 봐도 재미가 쏠쏠하다. 뭐 재미있는 일이 없나 했는데, 불만한 게임이었던 거다. 내가 은근히 응원하던 손모라는 유력정치인이 은퇴했다. 신인에게 밀려 낙선한 뒤끝이다. 그건 자못 섭섭하다. 그는 여러모로 인물이 됨직했지 싶다. 자질에서는 잘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몇퍼센트 부족했던 모양이다. 정치판에서 점잖은 건 미덕이 아닐진대 너무 점잖았는지도 모른다. 투표권도 없는 내가 별소릴 다한다.

목수木手의 법칙이라던가. '찾는 연장은 작업을 마치면 눈에 보인다.' 지난주 졸문

을 보내고 보니, 크고 작은그릇에 관한 사자 성어가 눈에 띄었다. 소기이영小器易盈이다. 작은 그릇은 쉽게 채워진다는 말이다. 한자로 쓰지 않아도, 쉽게 아는 말이고 하나마나한 소리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이란 말은 들었어도, 소기이영은 처음 보는 한자어漢字語이고 알지 못했다. 아는 척에 품 좀 잡으려 썼다. 어느 주석註釋에서는 노자老子的 대기만성大器晩成이 큰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란다. 오히려 '큰 그릇은 영원히 만들어질 수 없다' 고 했다. 글썄 누구말이 옳은지,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해도 상관 없을 듯하다. 대기만성은 내 결혼식에 주례 말씀 중 한 구절이다. 내가 늦되는 모양이다. 영화 명량의 대사라고 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구 한말 유학자 황현선생이 말했다. '세상에서 글 아는자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말을 섞는다. '장수된 자의 칼값을 하기 버겁고, 세상에 그릇 노릇하기가 어렵다.' 배운자들과 칼찬자들은 제

밥값이나 할수 있을겐가.

어제는 내 손으로/ 처음으로 밥을 해먹었다. 내가 먹기 전에/밥 한 그릇을 먼저 어머니 무덤가에 갖다드렸다. (정호승, 밥한그릇 중에서)

그 정치인도 큰 그릇인데, 큰그릇 노릇은 쉽지 않았던 듯 싶다. 그릇 모양이 그럴듯 하지 못했단가. 정치인으로 큰그릇에 금이 갔거나, 이가 빠진 흠결이 있었던가. 넘칠 때까지 채워지지 않고, 금이 간 사이로 물이 썰 수밖에 없었나. 그 사람 이름은 활달했는데, 은퇴한다 했으니 이제는 시詩를 쓸지도 모르겠다. '저녁이 있는 삶'. 말이 그윽하고 시詩스럽다. 큰 그릇은 쉽게 만들어질 수 없다. 대기만성大器晩成.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디모데 후서 2:20)

신영의 세상 스케치

45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무게'는 존재한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지금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백 프로 만족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네 삶은 늘 두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선택해야 하는 어찌면 운명적인 인생인지도 모른다. 한참 지나고 난 후에는 아쉬움이나 후회로 남아 어느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로 남아 깊은 상처가 되어 한으로 남기도 한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선택한 결과에 만족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자와 후자 중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도 나 자신은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인생에서 경험보다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늘 부러워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어려서는 그 부러운 마음의 속을 감추지 못해 '어린이의 샘(질투)'으로 표현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속 마음을 감추려 애쓰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신경쓰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장점)'을 챙겨볼 겨를도 없이 자꾸 자신을 작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이 다른 이에게는 또 하나의 부러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말이다. 그야말로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남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다. 부모님과 삼남매는 45년 전 처음 초창기 이민자가 되어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던 것이다. 시아버님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셨으니 한국에서 계셨더라도 별 불편함 없이 자식들을 키우며 사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육열이 높았던 이유로 미국에 큰 꿈을 품고 오셨다고 하신다. 그렇게 한국 사람도 거의 없는 곳에서 두 분이 직장을 다니시며 열심히 성실로 고생하신 덕분에 세 자녀들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으며 일곱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사십 년 전 초창기 이민자의 삶은 모두가 낮설고 손수 개척해야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이었음을 짐작으로나마 알 것 같다. 그렇게 힘든 삶을 선택하셨던 시부모님은 삼남매 모두를 잘 키워내셨다. 큰 아들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시키고 미 공군 대령으로 한국의 미 대사관 외교관(무관)으로 4년동안 근무하다가 미 공군 대령으로 지난 해 여름 예편하였다. 그리고 딸과 막내 아들은 그 당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코넬 대학에 입학하게 되

어 가까이 있는 동네분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새로운 선택(초창기 이민자의 삶)은 늘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나보다는 세 살이 위이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알았으니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없이 누나보다도 결혼을 먼저 했다. 시누이는 여자의 눈으로 봐도 참으로 똑똑하고 예쁘고 부러운 대상이었다. 미국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왔으니 미국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더 많이 있었기에 더욱 맑고 좋았다.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뉴욕의 월 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직장에서 프랑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그리고 결혼 얼마 후 프랑스 지사로 옮겨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

남동생의 아내인 올케는 직장이 아닌 집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시누이에게는 올케인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유난히 아이를 좋아하던 시누이는 남매를 두었는데 늘 직장 다니는 엄마라서 내니를 두고 두 아이를 키우게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좋아하니 우리 집 아이들(조카)에게도 최고의 고모였다. 지

금까지도 세 아이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졸업 때마다 늘 잊지 않고 축하해주는 멋쟁이 고모인 이유이다. 물론, 올케인 내게도 언제나 넉넉하고 편안한 멋쟁이 시누님이기에 내게는 더욱이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렇듯 많은 이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욱 크게 보이는 것이다. 한국의 속담에 '남의 것이 더 커보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다. '옆집 잔디가 더 푸르다'라고 말이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네 삶이 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엮여져 얽히고 설켜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 어떤 이가 또 어떤 삶을 선택하더라도 남이 모르는 '삶의 무게'는 있는 까닭이다. 이렇듯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설령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후회나 한으로 남기보다는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는 삶이면 좋겠다.



“**이제 불가능은 없다**”

{ 제한 없이 }

공간에 제한 없는
PC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 내내

온라인으로 수강가능!

{ 모두 인정 }

한국대학도
인정하고
미국대학도
인정하는

대학 교양학점 취득!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간제 등록

<http://time.sdu.ac.kr> . 82-2-2128-3232 . time@sdu.ac.kr



백린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의 침략정책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5)

일본이 1932년에 중국의 영토를 빼앗아 만주국을 세우자 중국의 항의와 열강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첫째로 남의 나라 영토를 탈취하여 따로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둘째는 주권국인 중국의 반대와 항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셋째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반대하며 만주국을 승인치 않는다는 국제연맹의 결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그런데 1932년 1월 18일 일본의 일련종(日蓮宗)의 탁발승 하나가 상해거리에서 중국인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상해의 일본해군은 탁발승의 살해가 중국의 반일단체의 소행이라고 지목하면서 육전대를 동원하여 학생단체와 노동자 단체를 습격했다. 상해부근을 수비하던 중국의 제19로군이 상해 육전대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일본의 상해 육전대가 중국의 제19로군을 당하지 못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상해의 일본해군은 본국에 원병을 청했다. 일본이 열강의 관심을 만

주로부터 판곳으로 돌리기 위해 상해사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일본군부는 즉시 가나자와(金澤) 제9사단과 구루메(久留米) 제24사단 그리고 노무라 요시사부로(野村吉三郎) 중장이 이끄는 제3함대를 상해로 파견하고 시라가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을 상해 파견군의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총 공격에 나서게 했다. 중국의 제19로군은 일본군의 중무기와 그 화력을 당하지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다. 이를 제1차 상해사변이라고 한다. 국제도시인 상해에서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도발하자 영·미·불 등 열강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당황한 일본군은 즉시 전투를 중단하고 정전을 선언했다. 일본 외무성은 상해사변을 변명하여 정치적인 야심은 전혀 없으며 인본의 이권과 일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취한 자위적 행동이라고 공표했다. 후에 밝혀진 사실로 상해사변의 발단이 된 일련종(日蓮宗)의 탁발승의 살해는 상해 주재 일본 공사관의 무관인 다나가류기찌 보

좌관이 관동군의 요청을 받고 중국인을 매수하여 상해거리를 돌아다니며 통냥하는 일본의 일련종 탁발승을 살해한 것이란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일본군부의 계획적인 모략이었던 것이다. 일본군부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외무성이 공동으로 “만주의 독립과 지나(중국)문제의 처리요강(要綱)”을 작성하여 그 시행을 관동군 참모인 “이다가키 세이시로” 대좌에게 훈령했던 것이다. 관동군 참모부는 일본군부의 훈령을 받아 행동에 옮긴 것이다. 일본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을 일본의 이권과 일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관동군이 독자적으로 행한 군사행동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 모두가 일본군부가 계획한 “만주독립과 중국문제처리요강”에 따라 행해진 군사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다. 상해사변을 전후하여 북지(北支)는 이미 일본세력이 판을 치고 있었다. 상해사변이 있는지 두달 후인

1932년 4월29일이였다. 이날은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이다. 이날 상해의 일본거류단이 천장절의 경축과 함께 상해사변의 승리를 축하하는 경축식을 상해의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개최하였다. 4월을 마지막 보낸 초여름이라 날씨가 좋아 많은 인파가 공원으로 몰려왔다.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는 상해임시정부의 김구선생이 건네주는 수제폭탄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나누는 다음 홍구공원으로 달려갔다. 윤봉길의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세탁소의 외교원이었으므로 일본말에 능통했다. 그는 일본사람으로 변장하고 경비가 삼엄한 경축식장으로 의적이 걸어들어갔다. 경축식이 시작되었다. 윤봉길은 재빨리 단상 앞으로 뛰어나가 단상의 귀빈석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그순간 폭발하여 단상에 앉은 일본 장성들이 모두 나가쓰러졌다. 일본인 거류민단장 가와바다(河端)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상해파견군 총

사령관 시라가와 요시노리(白川義則)대장은 중상을 입고 1개월 후에 사망했다. 그리고 주중대사 시케미즈 마고도(重光葵)는 한쪽다리가 날아갔으며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요시사부로(野村吉三郎) 중장, 가나자와 제9사단장 우에다 켄기찌(植田謙吉) 중장 등 10여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상해사변의 승리를 축하하던 홍구공원의 경축식장은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상해파견군 총사령관 시라가와 요시노리 대장과 그 휘하의 사단장들이 모두 나가 떨어진 것이다. 얼마나 장하고 통쾌한 일이었던가. 7만중국군이 해 내지 못한 일을 24세의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의사가 혼자서 때려 놓은 것이다.

(다음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4 무예도보통지와 정조대왕(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무예도보통지의 앞에 실린 정조 임금의 서문을 지난 호에 이어 계속 따라가 본다. “이에 나는 무의식武儀式과 전통적 법식을 계승하고 또한 기마술 등 육기를 다시 덧붙혀 24기를 만들었는데, 이미 나의 명을 받아 잘 깨달아서 숙달되고 깊이 연구한 자가 2~3인이나 된다. 그리고 원래의 도보와 숙달된 도보를 합치고 적절한 사례와 단편적인 해석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를 종합하였다. 그리하여 그 원래의 취지를 형식과 법도에 맞도록 평가하고 만들어서 우수한 무기武技와 그 기예의 오묘한 동작들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겨지게 하였는바, 이 책을 이룸하여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라 한다. 이 책으로 인해 치고 찌르는 법이 더욱 발전되고 상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禁苑에서 하는 훈련의 진정한 교본이 이 때에 이르러 나왔던 것이다. 교외에서 하는 훈련의 지침서인 ‘오위진병장도설’과 함께 씨와 날을 이루어 상호보완적으로 되어 이 두 책이 짝하여 조화롭게 함께 전수되니, 어찌 또한 이 무예도보통지가 병법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일찍이 행진(44)을 먼저 하고 이

후에 기예를 연마하는 것’ 이 병가의 일반론이라 했거니와 ‘병가의 다섯가지 원칙’에는 개인적인 기예를 닦는 것이 두번째요, 그리고 진법을 훈련하는 것이 그 다음 세번째라고 하니 이것은 어인 까닭인가?

대저 일월성신의 운행을 인지하고, 이루어지고 흠어지며, 어긋나고 부합하는 조건을 살펴서, 머무를 때는 견고한 담벼락이요, 움직일 때면 바람이나 비같이 휘몰아치는 것, 이것이 진법의 장점이다. 그러나 안으로 들이치고 밖으로 공격하는 구체적 수단은 결국 군사 하나 하나의 손발과 무기를 그 기본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진을 치고 행군하는 싸움에 있어 대적할 자가 없음도 결국 각 개인의 치고 빼는 동작의 숙달과 민첩함에 달린 것이다. 이치가 이러할진대 병법의 논하는 차례가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이 책의 간행으로 말미암아, 중위中尉 재관材官이 날마다 병법(65)과 개인 기예(66)를 익혀 모두 날날 무사武士(67)가 되어 나라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 계속적으로 이같은 책들을 저술하여 발간함이 근본의 취지이다. 이는 곧 억만년간 밝은 가르침

의 실질적 구현이 진실로 역시 여기에 있으니, 노력할진저, 제군들이여!” 내가 즉위한지 14년째 되는, 경술년 더운 여름에.

상기한 글이 정조가 지어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서문이다. 이 무예도보통지는 정조의 ‘우문지치右文之治(학문 중심의 정치)’와 ‘작성지화作成之化(신제품으로 발전을 꾀하는 정책)’를 명분으로 내세워 세운 규장각의 귀중한 소산이다.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한 해인 1776년에 창덕궁의 금원 북쪽에 세웠다. ‘규장奎章’이란 임금의 글이나 사문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역대 왕들의 글과 책을 보관하여 왕실 도서관 역할을 했는데, 정조가 여기에 비서실 기능과 문헌 기능을 통합적으로 부여하여 과거시험과 문신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목적은 즉위 당시의 왕권을 위협하던 척리환관들의 횡포와 음모를 누르고, 학문이 깊은 신하들을 모아 경사를 토론케하여 정사에 반영하고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는데 있었다. 또한 문예를 진흥하고 당시의 타락한 사회 풍습을 바로 잡아 순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1781년에는 규장각 청사를 가장 큰 청사인 도총부 청사로 옮

겼고, 강화도 사고의 별고를 신축하여 ‘외규장각’으로 하였고, 내규장각의 부설로 세운 장서각에는 우리의 책과 중국본들을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 외 많은 업적으로 조선 후기를 부흥한 정조는 아쉽게도 49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앓던 종기가 도져 1800년에 죽었다.

- 64) 진을 치고 행군하는 것.
- 65) 원문에는 ‘용호지도龍虎之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병서 ‘육도삼략’의 각장을 말한다.
- 66) 원문에는 ‘인관궐장引關關張’으로 적혀 있다. 인관은 활에 해당하는 동작이며, 궐장은 활보다 큰 쇠뇌에 해당하는 동작이다.
- 67) 원문에는 ‘비휴지사’로 적혀 있다. 비휴라는 동물은 호랑이와 비슷한 용맹한 짐승으로, 고대에는 길을 잘 들어서 전쟁에 사용하였다. 또한 용감한 무사나 병사 그 무리를 상징한다. 그 짐승의 수컷을 ‘비’라고 하며 암컷을 ‘휴’라고 한다.

제 6 탄

휴랍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행사기간 2014년 8월 ~ 11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339

안면거상술 (얼굴)
~~700~~ 만원
400 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 만원
500 만원

실루엣 리프트
~~300~~ 만원
200 만원

안면윤곽술 (광대)
~~450~~ 만원
350 만원

안면윤곽술 (사각턱)
~~450~~ 만원
350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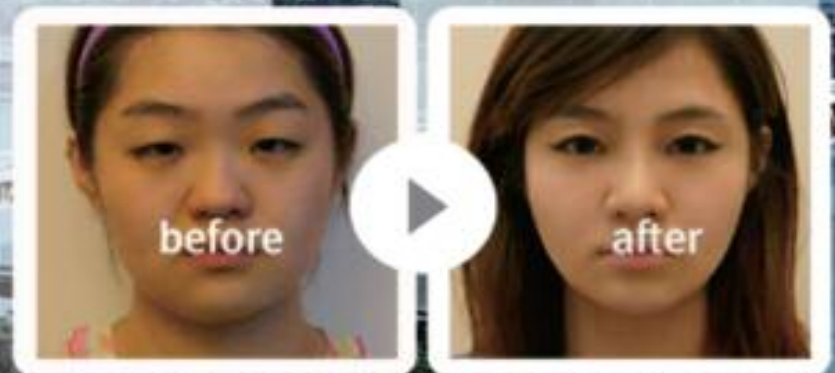
안면윤곽술 (턱끝)
~~450~~ 만원
350 만원

수술보증제 아시나요?

병원마다 수술 잘 한다하죠?
그런데, 수술보증은 왜 해주지 않나요?
기술이 아주 뛰어나야 보장할 수 있겠죠?
한국성형외과는 국내 유일 수술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입니다.

세계최초 가슴코젤 배꼽 삽입 수술 개발
국내 제 1호 치과교정 거의없는 양악수술
국내 제 1호 양악수술 성공 병원

반영구화장 독일 톤타임라이너 입점
SPA에스테틱 미국 더말로지카 입점



www.hankukno1.com

한국성형외과 韓國整形外科
HANKUK PLASTIC SURGERY

AM 09:00 ~ PM 11:00

365 ALWAYS OPEN / TEL : 02.555.777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人

식(食)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食)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 마태복음 6:11-12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食)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 누가복음 11:3-4

食은 인간에게 절대적이다. 의(衣), 주(住)와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는 3대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옷(衣)과 집(住)은 없어도 食 없이는 못 산다. 해서 食은 곧 사람들의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윤모 일병사건은 온통 대한민국을 요란하게 흔든다. 육군 28사단 소속 검찰관은 윤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5명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한달동안 윤일병을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지게 했었다.

윤일병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갈비뼈 14개가 부러지고 복부, 폐, 심장, 내장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근육은 과열되고 비장(脾臟)은 터졌었다. 상처로 보면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한 치사(致死)보단 살인행위”로 여겨질 여지가 크다. 가혹행위 실상이 드러나 여론이 비관으로 들끓자 군당국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군검찰과 군사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관할관’은 사단장 이상 부대지휘관. 군 검찰인 사권과 구속영장청구, 기소 불기소에 대해 검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사단장 군단장들이 무리하게 구속을 지시하고 수사결과도 무시하고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실형도 선고하라고 또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형(刑)을 깎기도 한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지휘관은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지휘책임 을 진다.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들기 쉽다. 수사 재판 기록권을 자기 면책용으로 휘두르게도 한다. 2013년 군(軍)내 사망사고 62건 중 42건 (67.7%)이 수사 부실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올 수밖에. 2013년 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7530건. 이중 탈영이나 기밀누설 같은 순수한 군범죄는 14.5%(1094건)에 불과. 나머지는 음주운전, 폭력, 상해절도 같은 일반 형사사건. 이 같은 일반사건의 수사와 재판까지 지휘관 관할의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두지 않고 민간검찰과 법원에 맡긴다. 미국엔 군사법원이 있지만 상설이 아니고 재판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구성된다. 지휘관은 1심에서만 관할권 관할권을 행사하며 군판사와 검찰관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 영국은 1심만 군사법원에서 2심은 일반 법원에서 한다.

여론은 한국도 군지휘관의 수사 및 재판 지휘감독권을 전시에만 인정하는 식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권을 마음대로 유지하는 한 사단장 군단장이 가혹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뿌리 뽑히지 않을 듯.

食: 穀饌飲 | 효선음신: 음식식. 그런데 이食자는 ①人: 사람 인 곧 인자(人子) 예수님을 뜻하는 글자와 ②良: 선(善)하고 착하다는 뜻이 합성된 글자. 다시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仁慈)하신 품을 섭취한다는 뜻.

해서 인간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을 뜻한다. 하여 食은 두가지 사: 첫째는 죄를 赦(사)하는 일, 둘째는 생이 다하는 죽음(死)가 食과 직결된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救世主)로 받아들인 크리스찬(Christian)은 이 두 사(死

赦)를 해결하고 사후생(死後生)과 직결된다 는 것.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 “매일 먹고 사는 양식속에 죽음(死)을 해결하는 죄(罪)의 赦(사)하심”이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罪)지은 자를 사(赦)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赦하여 주옵시고” .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나 이외의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 죄(罪)를 赦하여 주어야 하는 절대적 의무를 진다는 것. 내죄를 하나님으로부터 赦함을 받는 전제조건이어서다.” 나에게 죄 또는 불의(不義)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죄의 경중이 무엇이든 내가 赦해지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赦함을 못 받는다는 뜻.

赦의 뜻이 무엇이기에? 죄를 없애겠다는 용 赦의 뜻은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는 십자가(十)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一)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一) = 十 사랑, 둘째는 그 사람을 본따는 것 (亦: 又也 우야: 또역, 즉 十 사랑을 copy 카피: 본따는 것)을 뜻해서 셋째는 십자가를 본따 사람(赤: 붉을 적, 십자가 상에서 흘린 피색)을 支=지, 칠 복: 확인하며 -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따라가야만 하는 사랑인지를 확인하며 쫓아가는 것. 곧 赦라 한다.

이 赦가 크리스찬에게 왜 필요한가? Christ Jesus(그리스도 예수), 구세주의 숨결(breath)이어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赦)하면 赦하여 질 것이요 그래도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Resurrected) Jesus said, “Peopl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 요한복음 20:21-23.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입김(Breath)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전체에서 두번째, 첫번째는 인간이 피조된 후 죽음이 찾아 오기 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불어 넣으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生靈)이 된지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 창세기 2:7.

죄 없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셨던 구세주 예수님이 창세직후에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영생(永生)의 숨결”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영생 부활의 숨결”로 영사(永死)하는 인간을 되살려 주신 것. 무엇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善)을 먹음(食)으로 赦(사)를 휘둘러서 내 죽음까지 사에 바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스테반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기도하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간 사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딴 사람 그러낸 스테반(Stephen)의 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食)은 증거이므로.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Special!

모든 진통을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소아치과
•사랑니발치	•치아미백
•임플란트수술	•악관절(TMJ)
•보철/비니어	•수면진정마취
•신경치료	•3DX-Ray(CT 스캔)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1-11까지)

Dr. Jeong Sook Lee (장정숙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정훈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Welcome, tbo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FESTIVAL!

티보 플레이(Tbo Play) 런칭 이벤트

이벤트 시행 기간 : 7월 14일 ~ 8월 31일(개통일 기준)

이벤트 내용 :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3개월 후 \$34.99로 과금)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

미국의 증여세: 어떤 경우 증여세가 과세 안 되나?

증여세(Gift tax)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무상이나 저가로 재산이 이전됐다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 교육비 비과세(education exclusion)
- 의료비 비과세(medical exclusion)
- 정치단체/자선단체 기부금
- 배우자간 증여

1. 연간증여면제액(annual exclusion)

‘연간증여면제액’이란 증여자가 증여세 부담없이 수증자 한 명에게 1년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2014년도의 경우 \$14,000)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자가 어느 수증자에게 2014년도에 증여한 금액이 \$14,000이라면 그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을 둔 김한국씨가 2014년도 중 아들과 딸에게 각각 \$14,000씩 증여하면, 비록 김한국씨가 증여한 총액은 \$28,000이지만 수증자 1인당 증여액은 연간증여면제액인 \$14,000이하여서 김한국씨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증여면제 규정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든, 형제자매든, 친인척이든, 아니면 전혀 관련없는 제3자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간증여면제액은 향후 증여자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4,000을 초과하면,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

위의 김한국씨가 아들에게 2014년도 중 \$20,000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김한국씨는 연간면제액인 \$14,000을 초과한 \$6,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 규정입니다.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어느 한 배우자 혼자서 제3자에게 증여했다라도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비록 김한국씨가 혼자 아들에게 \$20,000을 증여했지만 부부가 합의하여 각각 \$10,000씩 증여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국씨와 그 배우자가 아들에게 각각 \$10,000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액이 연간면제액인 \$14,000이하가 돼 김한국씨 및 그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분할증여는 부부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여야 적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증여사실을 신고하여 부부분할증여임을 밝혀야 합니다.

2. 교육비에 대한 비과세(education exclusion)

타인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그 교육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교육비는 등록금(tuition)에 한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이외의 교재비, 기숙사비, ... 등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증여자가 교육기관에 직접 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교육비 목적으로 수증자에게 직접 교육비를 주면, 그 교육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미국의 교육기관인지,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인지 상관없이 그 교육기관이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가 한국의 대학에 다니는 타인의 등록금을 한국의 대학교에 직접 납부하면, 비록 교육기관이 한국에 있더라도 그 등록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에 대한 면제(medical exclusion)

타인의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 그 의료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대상 의료비는 치료목적용 의료비여야 하며, 성형 등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의료비를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에 충당하도록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직접 주면 그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나 의료기관의 소재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4. 배우자간 증여

부부간에 증여가 발생하면 ‘부부간 증여공제(marital deduction)’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 spouse)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U.S. Citizen)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면 부부간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 아니면 부부간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위에서 설명한 연간증여면제(annual exclusion)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2014년도의 연간면제 한도액은 \$145,000입니다. 즉,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증여세 부담없이 다른 배우자로 부터 매년 \$145,000씩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

변하지 않는 투자 교훈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은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 성급하게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투자 결정’은 노후대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움직임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칙을 이용하여 달나라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옵니다. 투자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투자원리’가 무엇인지 순서 없이 몇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하나, 투자하며 발생하는 ‘경비(expense, cost, commission)’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험인, 재정설계사, 브로커, 등은 발생하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업에서는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경비를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잘못된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 투자로 99.9%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잃을 때는 손실의 폭이 작아야 합니다. 운동시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격적인 시합으로 어느 한 게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어가 필수입니다.

셋, 마음의 감정(emotion)으로 사고파는 투자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팔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며 다시 하는 투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꾸준히 하는 투자가 제대로 하는 투자입니다.

넷, 투자는 유동적(liquidity)이어야 합니다. 오늘 투자하고 어떠한 이유로 돈을 찾고 싶으면 그다음 날 찾

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돈이 묶이는 부동산 투자(non-trade REIT), 벌금을 내고 나와야 하는 어뉴어티(annuity), 등의 투자로는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투자 대부분은 만든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주지만 투자한 사람에겐 그만큼 손실로 이어집니다.

다섯, 모든 투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금도 물가상승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는 투자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투자로 돈이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만을 기대합니다.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시간문제일 뿐 투자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섯,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수요가 있기에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주식폭락을 자주 예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맞아 떨어집니다.

죽은 시계도 하루에 정확히 두 번 맞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침서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확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90% 실패하더라.’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고 말할 때 그대로 따라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막연히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이 미래를 예상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투자자에게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죽다 깨어나도’ 조절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일은 주식시장의 움직임, 환율, 이자율, 하늘에서 내리는 비, 등입니다. 조절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소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꾸준한 저축, 투자 경비, 분산투자, 비오는 날을 대비한 우산, 등입니다.

아홉, 투자자는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유망한 투자종목이나 투자시기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스턴에 델바(DALBAR)라고 불리는 경제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구 자료는 1984년부터 2013년 말까지 30년입니다.

연구 조사의 중요한 결론 하나는 주식시장의 수익률(S&P 500 Index)은 11.1%이지만 투자자 자신의 수익률은 단지 3.7%였습니다. 무려 7.4%의 수익률을 매년 포기한 것입니다. 투자실패는 본인 잘못이지 주식시장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에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에서 벗어난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과 프로즌 요거트 사업을 함께 할 미래의 브랜드



FROZEN SWIRLZ
yogurt lounge



베리와 빈이 함께하는 요거트 라운지

사계절 매출을 창출해줄 새로운 매니지먼트 사업 아이템
프로즌 요거트와 최고 품질의 커피 메뉴로
프랜차이즈 **FROZEN SWIRLZ** 가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장소 선택 및 상권 분석
종업원 채용 및 실전 교육
은행 융자 및 장비 리스 관련 상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분들의
개별 상담 환영합니다

781.704.4825



문의: MAXSON DEVELOPMENT LLC.

Mr. Paul Son: bkcsn@gmail.com | 781.704.4825
300 Newburyport Turnpike Rowley, MA 01969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미국의 전문 대학원

지난 주 칼럼 <유학생의 미국 의대 진학>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에서 전문직, 특히 주 혹은 국가면허(State/Federal Licensure)가 필요한 직종은 대학원에서부터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법학, 의학, 약학, 치의학은 한국에서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 바로 관련 전공을 공부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학부의 전공과 상관없이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 해당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원이라고 하면 인문/사회 교육이나 자연과학, 공학과 기술 등의 전공을 공부한 후에 순수 학문 석사 학위인 M.A.(Master of Arts)나 M.S.(Master of Science)를 받게 된다. 혹은 건축학(M.Arch: Master of Architecture), 교육학(M.Ed.: Master of Education), 미술(MFA: Master of Fine Arts) 등의 전문적인 분야의 학위 공부를 이수

하는 과정도 있다. 그 상위 단계로는 심화 과정 강의와 세미나를 듣고, 교수의 지도 아래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해 논문을 집필해야 하는 박사 학위(PhD, EdD, DBA 등)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부에서 기본 지식을 갖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깊이 있는 연구 과정을 통해 같은 전공이라도 자신의 학업 방향을 스스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학, 법학, 약학, 치의학 등 학위 취득을 한 후에도 따로 국가 고시 등을 통해 관련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전공들은 그 과정이 전혀 다르다. 우선, 해당 학위를 위한 공부나 대학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과정이나 비슷한 전공이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부 전공과는 상관없이 우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법학 전문 대학원(Law School)에 진학하고, 미국의 변호사 자격 시험인 Bar Exam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을 배양하는 전문 대학원의 경우,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진학이 쉬워진다. 즉, 일반적인 MA 혹은 MS 학위를 이수하려면 기본적인 독해, 계산, 작문 능력을 시험하는 GRE(대학원 입학 시험)를 보고 대학원에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법대에 진학하기 위해선 장문 독해와 논리추리 능력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LSAT(법대 입학 시험)을 봐야 하고, 약학 대학원의 입학 시험인 PCAT에는 일반적인 독해나 수학 문제 외에 생물학, 화학, 해부/생리학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다.

대학 때의 성적은 물론, 이수 과목도 전문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적인 공부를 미리 시작할 수는 없지만, 법학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면 정치학이나 기업재무, 철학 등의 과목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좋고, 의학이나 치의학, 약학 계통의 전문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기 화학이나 생물학 등의 공부가 도움이 된다. 전공이나 부전공은 상관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미리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원의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심지어 학교에 따라 전문 대학원 진학에 요구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Pre-med, Pre-dental 커리큘럼이 미리 짜여 있는 경우도 있다.

전문 대학원 중에서 Top School들은 내신과 시험 점수 외에도 해당 전문 직종에 대한 열정과 인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흔하다.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어필하기도 하지만, Top School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과외 활동 경력이나 특수한 배경, 효과적인 추천서 등

으로 합격 확률을 높인다. 실제로, 미국 법학 대학원 학생 중 약 40%만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인턴이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하고 스스로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경험을 내세운다. 같은 맥락으로 의대나 약대는 병원이나 약국, 양로원 등의 기관에서의 경력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 중에 이력을 쌓아 두는 것이 좋다.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질이나 헌신, 리더십, 독립심 등의 인성적인 장점을 강조한 추천서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보통 자신을 가장 잘 알며 학업적인 성취도와 업무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대학 교수나 직장 상사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대학원 입학 원서와 자기 소개서는 지원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리면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십시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2014-2015년도 대학 공통원서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지난해 미국 대학 공통원서에서 여러가지 기술적 요인이 발견되어 많은 대학들에서 조기지원(ED/EA) 마감일이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는 지난해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기술적 요인이 많이 개선된 상태의 공통원서로 새롭게 8월 1일 나왔다. 원서의 내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지만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

학생들이 원하면 선생님들이 쓴 추천서 내용을 대학 측에 요구하여 추천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동의하면 이는 최대한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FERPA법안을 통해 자신의 권리, 즉 선생님들이 써준 편지를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는 Not Waive로 표시하고, FERPA권리를 포기 하겠다, 즉 추천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는 Waive로 표시 해야 한다. 한번 표시되어 추천인을 초청하게 되면 더이상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매우 주의를 요한다. 만약 학생이 Not Waive로 표시할 경우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의 원서를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Waive로 표시하여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지만 원서와 추천서의 내용을 존경한다는 사인을 입학 사정관에게 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2.재정보조 신청

많은 대학들이 재정보조 신청과 원서는 별개이므로 입학 사정관이 지원자들의 재정보조 신청 유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Need-Blind Financial Aid라고들 주장해 많이 했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바뀐 원서에는 재정보조 신청 유무를 묻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입학에 얼마나 재정보조 신청이 불이익을 줄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조기 지원하면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정규지원시 재정보조를 신청한 학생들보다는 입학에 유리한 혜택을 보는것이 당연하다. 물론 조기지원시 재정보조 신청이 입학에 영향을 안 준다는것은 아니다. 단지 조기지원자들에게는 학교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보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지원자들의 재정보조는 얼마나 많은 조기 합격자들이 얼마만큼의 재정보조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학교가 계획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재정보조 수

혜 혜택을 받을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규 지원시 재정보조는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조기지원시 재정보조 신청을 원하면 2013년도 세무 신고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지원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다.

3.지원학교에 대한 흥미 여부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들이면서 리쿠르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을 매년 방문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학교를 지원 하겠다는 배경에 대한 질문을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하고 있다. 대학별 효율적인 리쿠르트 방법을 모색하기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지원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캠퍼스 라이프, 리서치 기회, 인턴쉽, 그리고 기숙사 시설 등을 확인하여 학교를 결정하라는 의도가 있다. 물론 어떤 대학은 학교 방문이 입학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관심있는 학교들은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학교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4.Slide Room

지원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재능을 보기 위해 학생이 음악, 미술, 리서치등의 서류들을 직접 업로드시켜 대학의 각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난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작품이 전문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업로드시키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로드된 작품이나 내용들은 각각의 추천서, 이력서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단순한 활동들을 업로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공통원서에 많은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학생의 주제를 선정하고 각 지원 학교에 맞는 원서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필자가 그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 들로써,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번조, 복사, 양도, 배포, 전사,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 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동양식당 히바치/스시 우스터 클락유니버시티, 저녁 한끼 Full 리커 면허증
연매상 \$250,000 매매가격 \$129,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14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8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67,000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3,000 매매가격 \$3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턴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퓍아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턴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이드업 업무

-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4 보스톤교육원 여름방학 SAT I Program

I. 내실있는 Program 구성

- 문제 유형별 수업 후 후반 실전 test 위주 수업
- 매일 단어 및 실전문제 test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 프로그램(9:00~5:30)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home work, 매주 test 결과 보고서 발송)

III. 합리적인 수강료

- 정규반: \$950 / session (3주)
- 주말반: \$450 / 3주

II. 실력있는 강사진

- **Critical Reading**
영문학박사
다년간 SAT 강의 경력의 실력있는 강사
- **Writing**
15년 이상의 강의 경력
에세이 쓰기 및 교정 전문가
- **Mathmatics**
공학박사
오랜 경험으로 학생들 취약점 파악 후 지도

IV. 다양한 선택 가능성

- Session 별 각기 다른 수업 및 test 자료
- 실전문제 풀이 중심 주말 특별반
- New SAT (2016년 시행) 준비반

* 저학년을 위한 writing, reading clas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services@bostonedu.org